

09

September 2026
vol. 307

Style

조선일보

Ultimate
Luxury Lifestyle
Magazine

New in Now



AUDEMARS PIGUET
Le Brassus

Alhambra, celebrating luck since 1968

Van Cleef & Arpels

Haute Joaillerie, place Vendôme since 1906



Alhambra
Long necklace



CELINE
PARIS





Selena Forrest
Left *The Menil Collection*, right *The Rothko Chapel*, May 2026 in Houston, Texas
loropiana.com





THE SUNSHINE JEWELER
SINCE 1936



Contents

- 12_SELECTION** 클래식한 재킷과 스커트부터 주얼리, 백 & 슈즈까지, 차분하고 우아한 가을 스타일링.
- 13_AUTUMN ROSES** 로즈 골드 워치가 알리는 가을의 시작
- 15_GLITTER IS BETTER** 클래식한 밴드에 얹은 다이아몬드 한 스푼
- 16_INSIGHT** 국내 및 해외에서 각광받는 이달의 최신 트렌드 & 주목할 만한 소식들
- 18_베니스와 상하이를 잇는 사유와 율림의 여정** 율리스 찬의 베니스 전시 〈Vessels of Other Worlds〉(5월 8일~10월 18일)에서 본 그의 티타늄 작업은 신비로웠다. 베니스에서 마주한 그의 세계가 시공간을 달리한 상하이에서는 어떤 모습으로 펼쳐질까, 이 설렘을 안고 몇 주 뒤 상하이로 향했다.
- 20_아트 페어를 넘어, 도시 전체가 미술관이 되는 한 주 팬데믹 이후 일상 회복이 본격화된 2022년, 국내 미술계의 가장 큰 화두는 글로벌 아트 페어 브랜드인 프리즈의 서울 진출이었다. 당초 5년을 약속했던 키아트 서울과의 동행은 올해 일단락된다. 첫 번째 여정을 마무리하는 지금, 지난 5년의 동행이 서울과 한국 미술계에 무엇을 남겼는지 돌아본다.**
- 22_A VIBRANT EVOLUTION** 지난 6월 출시한 로열 오크 오프쇼어 셀프와인딩 크로노그래프 버전의 여섯 가지 신제품으로 더 컬러풀하고 익스트림한 스포츠 워치 감성을 찾는 남녀 시계 애호가들의 마음을 두드린다.



- 24_하슬라, 예술로 다시 읽다** 한때 역사와 지명에 머물던 강릉의 이름들이 이제는 국제 예술제와 미술관의 이름으로 다시 살아나고 있다. 새로운 문화 플랫폼들은 강릉에 낯선 무엇인가를 덧씌우기보다, 이 도시가 오래 품고 있던 이름과 장소, 자연과 기억을 다시 불러낸다. 강릉국제아트페스티벌(GIAF)의 존재감도 크다. 여기에 새 예술 공간과 창작자들의 움직임이 더해지면서 강릉의 매력이 하나씩 모습을 드러내고 있다.
- 25_A NEW LIGHT ON** 반세기가 넘는 시간 동안 행운의 상징으로 사랑받아온 반클리프 아펠의 알함브라 컬렉션. 올해는 투명하게 빛나는 핑크 에나멜을 입고 한층 생동감 있는 모습으로 돌아왔다.
- 26_TRUE COLORS** 모든 이의 시선을 한데 모을 팝 컬러 워치.
- 27_NEW EASTERN REVERENCE** 파인 주얼리 하우스 카린은 신세계백화점 강남점 1층에 새로운 부티크를 열고, 국내 시장에서의 입지를 더욱 공고히 한다.
- 28_2026 F/W TREND REPORT F/W** 컬렉션을 통해 꼽아본 패션 하이라이트 8.
- 30_ABOUT AUTUMN** 새로운 유흥에 빠진다. 계절을 완성하는 뉴 룩, 뉴 스타일.
- 38_GET THE LIST** 클래식함에 변주와 위트를 더한 옷가를 스타일 모먼트.
- 40_BEST BIG BAG** 한 손에 들기조차 버겁다. 과감한 사이즈 자체로 스타일에 강렬한 액센트를 더하는 XL 백.
- 41_SCENTED SEPTEMBER** 한층 깊어진 계절, 저마다의 향과 서사로 완성된 가을과 마주하다.
- 42_EDITOR'S PICK** 매일 손이 가는 스킨케어부터 립 & 아이섀도, 향기로운 아이템까지, 지금 주목해야 할 이달의 뷰티 셀렉션.



Pomellato



차분한 브라운 컬러와 벨티드 디자인이 돋보이는
제이론 필드 재킷 6백95만원 **로로피아나**.



크닉 컬러의 비세토스 모노그램 캔버스 헤어밴드 21만원 **MC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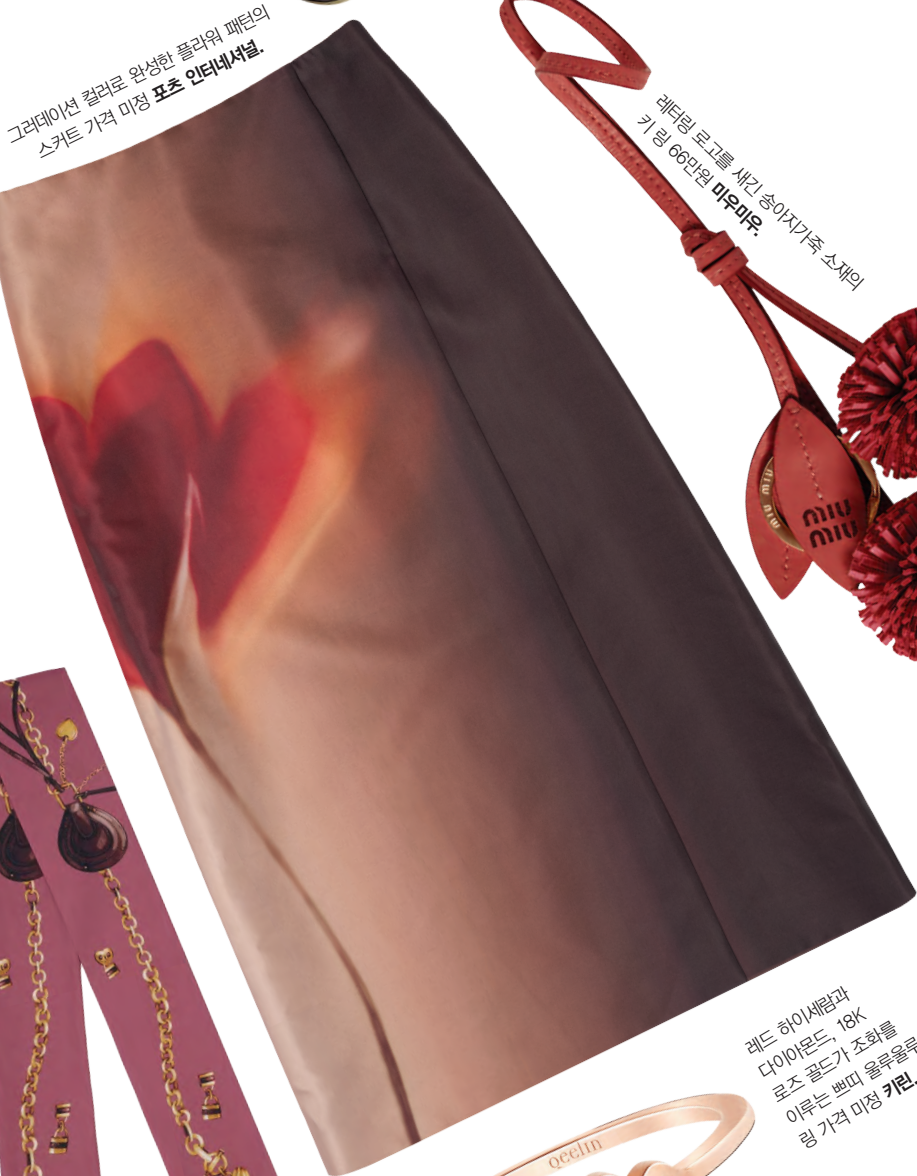


총 0.76캐럿의 오벌 루비와 총 1.24
캐럿의 다이아몬드를 세팅한 펜던트
4천2백만원대 **그라프**.



슬림한 골드 메탈
프레임에 보 장식을 더한
선글라스 89만원 **디올**.

브라운 카프 스킨 스트랩과
골드 톤 T 메탈 장식을 조합한
브레이슬릿 40만원 **토즈**.



그래데이션 컬러로 완성한 플러워 패턴의
스커트 가격 미정 **포츠 인터네셔널**.



레더된 로고를 새긴 속아가죽 소재의
키링 69만원 **미우미우**.



하트 모양 꽃잎 모티브
중앙에 다이아몬드를
세팅한 프리볼
이어링 9백70만원대
반클리프 아펠.



말을 모티브로 한 디자인에 컬러 볼록이
조화를 이루는 카프 스킨 소재 파스칼
브로치 가격 미정 **에르메스**.



슬림한 실루엣에 버클 장식으로 포인트를 준 벨트 99만원 **셀린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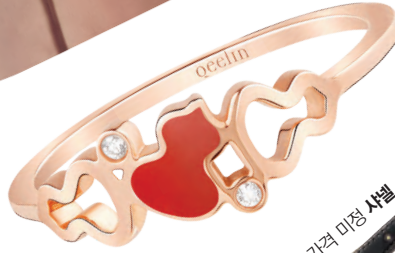


모던한 세이프와 메탈
디테일의 토코 환과 2줄
소재 플라스 스몰 바깥 벨
22x24x12cm, 89만원 **루미**.

양면으로 착용 가능한 오가니 실크 트릴 소재의
밴도우 스카프 34만원 **클로에**.



양면으로 착용 가능한 오가니 실크 트릴 소재의
밴도우 스카프 34만원 **클로에**.



레드 하트세팅과
다이아몬드, 18K
로즈 골드기 조화를
이루는 펄스 울루울루
링 가격 미정 **기린**.



슬림한 앞코와 대비되는 컬러를 조합한 스웨이드 키드 스킨 슬링백 가격 미정 **샤넬**.

크리스탈 스터링실버 장식
에디터 선정

Autumn Roses

로즈 골드 워치가 알리는 가을의 시작.
PHOTOGRAPHED BY PARK JAE YONG



(위부터 차례대로) 에거 르클트르 레베르소 클래식 듀에토 34.2×21mm 사이즈의 18K 핑크 골드 케이스로 완성한 타인피스로 앞면은 아이코닉한 세 줄의 거드룬 장식이 돋보이는 다이얼, 뒷면은 블랙 선레이 브러시 및 기요세 패턴 다이얼에 워아래 다이아몬드 세팅으로 완성했다. 칼리버 844로 구동한다. 6천7백50만원. 문의 02-3449-5912
브레게 레인 드 네이플 8938 나플리의 여왕 카를린 무랴를 위해 제작한 최초의 손목시계에서 영감받아 탄생한 컬렉션 워치. 로즈 골드 케이스와 브레이슬릿에 베젤, 플랜지, 러그에는 총 1백61개의 브릴리언트 컷 다이아몬드를 세팅하고, 다이얼에는 3백84개의 다이아몬드를 스노 세팅해 찬란한 아름다움을 선사한다. 1억3천만원대. 문의 02-6905-3571
바세론 콘스탄틴 오버시즈 셸프 와인딩 지름 34.5mm로 완성한 18K 5N 핑크 골드 케이스로 어떤 손목에도 완벽한 착용감과 균형감을 선사한다. 골드 레커 다이얼에 오픈워크 케이스 백을 통해 확인할 수 있는 22K 3N 옐로 로터까지, 온전히 골드로만 완성해 완전한 미학을 전한다. 매뉴팩처 칼리버 1088/1로 구동한다. 9천1백50만원. 문의 1877-4306
반클리프 아펠 베를리 워치 브랜드만의 경쾌한 감성을 녹여낸 로즈 골드 비즈로 장식한 지름 23mm 케이스에 기요세 화이트 머더오브월 다이얼을 매치했다. 우아한 감성을 주는 워치로 스위스 쿼츠 무브먼트로 작동한다. 5천2백50만원. 문의 1877-4128
오데마 피게 로열 오크 미니 쿼츠 전설적인 디자이너 제랄드 젠타가 디자인한 워치 컬렉션으로, 지름 23mm의 18K 핑크 골드에 블랙 옹크스 다이얼과 다이아몬드 아워 마커로 완성해 세련된 현대 여성에게 안성맞춤. 쿼츠 칼리버 2730으로 작동한다. 6천7백25만원. 문의 02-543-2999
소메 조세핀 아그레드 워치 조세핀 황후가 사랑했던 메종을 상징하는 페어 셰이프의 로즈 골드 케이스를 중심으로 아그레드로 장식한 패시 처리 V자형 스트랩과 트롬프뢰유 다이아몬드 등으로 완성해 여성스러운 매력을 선사한다. 가격 미정. 문의 1670-1180
까르띠에 탱크 아메리칸 워치 루이 까르띠에가 디자인한 워치로, 균형감 있는 직사각형 케이스가 특징. 브릴리언트 컷 다이아몬드를 파베 세팅한 35.4×19.4mm 핑크 골드 케이스에 새틴 브러시드 살바 마강 다이얼을 매치했다. 가격 미정. 문의 1877-4326
피아제 식스티 워치 헤리티지 피스에서 영감받은 독특한 트라페즈 형태의 지름 29mm 18K 로즈 골드 케이스에 51개의 브릴리언트 컷 다이아몬드 약 0.52캐럿을 세팅한 워치. 피아제 57P 쿼츠 무브먼트로 작동한다. 6천4백만원대. 문의 1877-4275
에디터 **성정민**

어시스턴트 **김지현**



for him Selection

정제된 소재와 시간이 지나도 변치 않는 클래식한 디자인, 카기와 브라운, 블랙의 차분한 컬러 팔레트로 조용한 럭셔리의 미학을 담아낸 가을 맨즈 룩.

PHOTOGRAPHED BY KIM YOUTAE



화이트 골드와 블랙 다이아몬드를 조합한 벨 에포크 릴 브레이슬릿 가격 미정 **다미아니**.

(위부터 차례대로)
다미아니 벨 에포크 릴 링 문화적으로 가장 찬란하고 아름다웠던 벨 에포크 시대에서 영감을 받아 탄생한 벨 에포크 컬렉션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원과 사각형의 형태가 회전하도록 고안한 링으로, 18K 화이트 골드에 다이아몬드를 세팅해 화려함을 부여했다. 가격 미정. 문의 02-515-1924
샤넬 파인 주얼리 코코 크리쉬 링 하우스의 상징인 펄딩 모티브에서 영감을 받은 컬렉션의 링으로, 18K 베이지 골드에 다이아몬드를 파베 세팅해, 클래식한 디자인임에도 하나만으로 시선을 사로잡는다. 가격 미정. 문의 080-805-9628
부쉐론 콰트로 레디언트 그로그랭 웨딩 밴드 18K 화이트 골드의 그로그랭 라인과 33개의 라운드 다이아몬드 0.25 캐럿을 세팅한 밴드 두 가지가 조화를 이루어 눈부신 모노크롬을 완성한다. 8백25만원. 문의 080-822-0250
프레드 샹스 인피니 링 무한함과 영속성을 나타내는 기호 '원스케이프'에서 영감을 받은 아이코닉 컬렉션으로, 18K 화이트 골드 모티브에 0.2캐럿 페어 컷 다이아몬드 센터 스톤 주위로 브릴리언트 컷 다이아몬드를 풀 파베 세팅했다. 1천6백80만원. 문의 02-514-3721
포렐라토 투게더 링 심플한 골드 링크로 완성한 로즈 골드 싱글 밴드에 41개의 다이아몬드 약 0.5캐럿을 세팅해 반짝임을 부여했다. 레이어링하기 좋은 모던하고 클래식한 디자인의 밴드 가격 미정. 문의 0030-8321-0441
티파니 식스틴 스톤 전설적인 디자인이나 잔 솔럼버제가 텍스타일에 기반한 가죽의 뿌리에서 영감을 받아 고안한 크로스 스티치 모티브를 담은 디자인. 라운드 브릴리언트 컷 다이아몬드 사이에 X 형태의 플레타늄을 교차해 포인트를 주었다. 가격 미정. 문의 1670-1837
그라프 로렌스 그라프 시그니처 컬렉션 링 기하학적 각면 모티브로 완성한 18K 화이트 골드 밴드에 다이아몬드를 파베 세팅해 우아함을 배가했다. 1천1백39만원. 문의 02-2150-2320
에디터 정정민

Glitter is Better

클래식한 밴드에 올린 다이아몬드 한 스푼. PHOTOGRAPHED BY PARK JAEYONG



INSIGHT



Bucket Up
바킷 백은 양동이를 연상시키는 원통형 실루엣에서 이름을 얻은 가방으로, 넓게 열리는 입구를 스트랩 등으로 조여 여닫는 구조가 특징이다. 최근에는 지퍼나 플랩을 적용하는 등 다양한 모습으로 선보이고 있다. 이러한 특징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쉐린느 미니 바킷 백은 별도의 플랩 없이 간결한 구조로 실용성을 갖췄으며, 긴 스트랩을 활용해 숄더부터 크로스 보디까지 폭넓게 연출할 수 있다. 또 가죽보다 가벼운 캔버스 소재에 브랜드를 상징하는 트리앵글 패턴을 입혀 포인트 아이템으로 완성했다. 울가을, 쉐린느 미니 바킷 백으로 포멀한 룩부터 편안한 아웃캐주얼까지 다채로운 스타일을 완성해보자. 1백75만원. 문의 1577-8841



Eye Statement
샤넬이 다섯 가지 아이섀도우와 네 가지 섀틴 톤 코트를 하나의 팔레트에 담은 네 브릭 옹브르 587 더 뉴 스모키를 선보인다. 토프 모브와 레드 브라운, 로지, 미디어 베이지와 소프트 핑크에 화이트, 플래티늄, 파우더 핑크, 실버 퍼플 톤 코트를 더한 아홉 가지 아이 컬러가 특징. 매트부터 섀틴과 시머까지 서로 다른 컬러와 질감을 자유롭게 조합해 은은한 음영부터 강렬한 스모키 아이까지 하나의 팔레트로 연출할 수 있다. 새로운 계절, 한층 깊어진 스모키 메이크업에 도전해보는 건 어떨까. 5.4g 17만8천원. 문의 080-805-9638

(왼쪽부터 시계 방향으로)
모노그램 리버스 캔버스 소재의 군에 컬러풀한 퍼플 올인 LV 아이스크림 에어팟 케이스 가격 미정 **루이 비통**, 문의 02-3432-1854, 오렌지빛 랑스터 모티브가 돋보이는 백 참 28만원 **벌바리**, 문의 02-511-5930, 카프 스킨과 캔버스 소재에 매종의 아이코닉한 그래픽 패턴을 입힌 스티플 백 8백만원대 **에르메스**, 문의 02-542-6622, 광택감 있는 푸크시아 레더 골드 메탈 디테일을 더한 펜드 아르코 1백만원대 **펜디**, 문의 02-514-0852, 포토그래퍼 **최만영** 에디터 **신정임**

Color Crush
선명한 컬러와 위트 있는 디테일로 스타일에 경쾌한 포인트를 더해줄 패션 아이템 4.

Scenting Memories
2015년 뉴욕에서 탄생한 프레이그런스 하우스 빌헬 퍼퓨머리가 국내에 공식 론칭했다. 모든 향수는 프랑스에서 제작하며, 희귀한 원료와 예상치 못한 향의 조합으로 과거의 아름다운 순간을 후각적으로 구현한다. 비가 그친 뒤의 런던 거리처럼 특정한 시간과 장소, 기억 속 장면에서 영감받은 이야기나 펼쳐지며 시대를 초월한 우아한 향을 선사한다. 그중 국내 론칭과 함께 브랜드 대표 향수 '모닝 체스'는 여름 아침 햇살이 내려앉은 신선한 풀밭과 바닷바람이 스치는 테라스에서 즐기는 체스 게임의 한 장면을 표현했다. 베르가모트의 산뜻함으로 시작해 투스칸 레더, 갈바늄을 지나 파츨리와 블랙 앰버로 마무리된다. 투명한 유리 병을 상징하는 채도 높은 옐로 컬러가 돋보이는 보틀 역시 눈여겨볼 만하다. 문의 080-363-5454

The Shape of Modernity
이탈리안 럭셔리 브랜드 보테가 베네테가 2026 겨울 컬렉션에 새로운 사이즈의 베이비 바바라 토트백을 추가한다. 크리에이티브 디렉터 루이스 트로터(Louise Trotter)의 비전 아래 하우스 특유의 조형적인 실루엣을 바탕으로 우아하면서도 현대적인 비즈니스 백의 새로운 기준을 제시한 디자인이다. 패들로 구성된 보디와 유연한 형태, 정제된 실루엣 등 오리지널 디자인 구조와 소재의 본질을 그대로 유지하면서도 사이즈를 축소해 활용도를 높였다. 스트랩을 제공해 크로스 보디로도 착용 가능하다. 블랙, 페트롤리엄, 글레이셜, 실라가 그레이, 일라바스티까지 총 다섯 가지 컬러로 다양하게 만나볼 수 있다. 6백만원대. 문의 02-3438-7694



Daily Elegance
바쉐론 콘스탄틴이 럭셔리 스포츠 워치의 대표 주자인 오버시즈 컬렉션에서 여성을 위한 지름 34.5mm의 신제품을 선보인다. 18K 5N 로즈 골드와 스테인리스 스틸, 두 가지 버전으로 제공하며 스테인리스 스틸 버전은 특히 우아하고 고풍스러운 버건디 컬러 레커 다이얼을 적용해 시선을 사로잡는다. 다이아몬드를 세팅하지 않은 아이코닉한 욱자형 알테 크로스 베젤로 캐주얼하고 클래식해 어디에도 매치하기 좋으며, 교체 가능한 세 가지 스트랩을 제공해 룩에 따라 다양한 스타일로 연출 가능하다. 매뉴팩처 칼리버 1088/1로 구동하고, 40시간의 파워 리저브를 제공한다. 문의 1877-4306



A Bold Classic
클래식한 솔리테어 링을 티파니앤코 하우스의 전설적인 디자이너인 잔 솔럼버제의 아이코닉한 식스틴 스톤 모티브로 장식해 한층 개성 있는 실루엣을 완성했다. 그 주인공은 바로 '식스틴 스톤 솔리테어 다이아몬드 링'. 1959년 잔 솔럼버제가 작품의 짜임에서 영감받아 선보인 식스틴 스톤은 밴드를 가로지르는 크로스 스티치가 눈에 띈다. 가족의 뿌리를 상징적으로 담고 있으며, 더 나이가 서로 다른 요소를 하나로 연결하는 조화와 유대의 의미를 표현한다. 특히 라운드 브릴리언트 다이아몬드를 감싸듯 자리한 옐로 골드 X 디테일이 시선을 사로잡으며, 익숙한 솔리테어 실루엣에 독창적인 조형미를 더했다. 색다른 웨딩 링을 찾는 신부는 물론, 기존 식스틴 스톤 링과는 다른 매력을 원하는 이에게도 특별한 선택지가 되어준다. 문의 02-1670-1837

NEW ART SPACE

작가의 예술혼이 깃든 박서보미술관
아흔이 넘어 쇠약해진 몸으로 만났을 때도 호기심 어린 눈을 동그랗게 뜨고 질문을 쏟아내던 박서보 화백(1931~2023)은 '공간 사랑'도 유별났다. 언젠가 프랑스 남부의 아름다운 문화 예술 공간인 사토 라 코스트에서 자신의 전시를 꼭 열고 싶다면 소망을 이뤄내고도 당시 코로나19로 직접 프로방스로 떠나지 못해 무척 아쉬워했던 기억이 난다. 결국 프로방스에는 다시 가보지 못하고 세상을 떠났지만 박 화백의 손길과 발품, 예술혼이 깃든, 자신의 이름을 딴 고아한 예술 공간, 박서보미술관이 드디어 문을 열었다. 그가 생전에 일상을 보냈던 연희동 작업실 바로 옆에 자리한 미술관으로, 건축가 최문규가 설계를 맡아 지하 2층에서 지상 3층까지 총 5개 층(건축 면적 2,000㎡)으로 조성됐다. 모두 3개 전시실(SPACE 0, SPACE 2, SPACE 3)과 워크숍 등 커뮤니티 공간(SPACE 1), 아와 정원 등으로 구성된 이 미술관은 단지 한 작가의 작품을 품은 기념 공간에 머무르지 않고, 박서보가 평생 추구한 예술적 가치와 교육 정신을 바탕으로 한국 현대미술을 연구하며 새로운 세대와 세계 미술의 접점을 넓혀가는 문화 플랫폼을 지향한다. 이 같은 의도에서 기획된 개관전은 〈박서보와 호영 도단: 비움 그 충만〉, 한국 단색화를 대표하는 박서보와 베트남에서 태어나 프랑스를 기반으로 활동해온 화가 호영 도단(Huong Dodinh, b. 1945)의 회화 42점(박서보 25점, 호영 도단 17점)을 소개하는 2인전이다. 박서보재단은 한-불 수교 140주년을 맞이한 올해에 프랑스를 기반으로 활동해왔다는 공통분모를 지닌 두 작가의 만남에도 의미를 뒀다. 흥미롭게도 4년 전인 2022년 베니스비엔날레 기간에 박 화백과 호영 도단이 각각 전시를 열었는데, 박 화백은 자인 보, 이사무 노구치와 함께 폰다치오테 퀴리니 스타필리아에서 3인전을, 호영 도단은 무제오 코레르에서 개인전 〈Ascension〉을 선보였다. 두 작가는 반복과 축적을 통한 수행적 작업 방식에서도 닮은 면모가 엿보이는데, 2023년 박서보를 만난 호영 도단이 그때의 기억을 담아 작업한 회화 신작 'X.K.N.31'(2025~2026)도 이번에 함께 전시되고 있다. 전시는 2027년 1월 3일까지 열리며, 각종 연계 프로그램이 꾸려진다. 매주 화~일 오전 11시부터 오후 6시까지 운영하며, 입장료는 5천원이다. 홈페이지 www.parkseobomuseum.org 글 **고성연**



1 박서보미술관 외관. 박서보미술관 제공, 사진 남궁선.
2 박서보미술관 개관전 〈박서보와 호영 도단: 비움 그 충만〉 전시 모습(B2 SPACE 0).
3 박서보, 모범 No.950628', 1995, 캔버스에 한지와 혼합 매체, 227.5×182cm.
4 호영 도단(Huong Dodinh), '무제 (Untitled)', 1990, 나무 패널에 고정된 코팅지, 87×122cm.
※ 2~4 이미지 제공, 박서보미술관, 사진 전병철

Blue Forever
지해와 진실, 변치 않는 사랑을 상징하는 9월의 탄생석, 사파이어가 선사하는 깊고 청명한 푸른빛.

(위부터 시계 방향으로)
다미아니 벨 에포크 브레이슬릿 회전하는 힐 모티브를 따라 화이트 골드에 다이아몬드와 깊고 선명한 블루 사파이어를 세팅했다. 가격 미정. 문의 02-6204-1924 **그라프 킬다의 보우 링** 총 2.17캐럿의 바게트 컷 사파이어와 2.02캐럿의 라운드 컷 화이트 다이아몬드로 유려한 리본의 실루엣을 완성했다. 6천6백53만원. 문의 02-2256-6810 **반클리프 아펠 플리 드 프레 이어링** 총 6.27캐럿의 사파이어 28개와 총 3.2캐럿의 다이아몬드 64개로 꽃을 형상화해 장성한 광채를 더했다. 가격 미정. 문의 1877-4128 **프렐드 상스 인피니 셀레브레이션 사파이어 네크리스** 18K 화이트 골드에 4.86캐럿의 브릴리언트 컷 다이아몬드 6백15개를 세팅해 화려함을 배가했으며, 1.37캐럿의 페터 컷 사파이어 2개로 포인트를 주었다. 가격 미정. 문의 02-514-3721 포토그래퍼 **최만영** 에디터 **신정임**

월리스 찬(Wallace Chan) 〈Vessels of Other Worlds〉

베니스와 상하이를 잇는 사유와 올림의 여정

지난 7월 뜨거운 태양이 작렬하는 베니스에서 월리스 찬(Wallace Chan)의 작품을 만난 것은 처음부터 치밀하게 계획된 게 아니었다. 지난 5월 초 베니스 비엔날레 개막에 맞춰 전시 초청을 받았지만 당시에는 방문하지 못했고, 여름에 유럽 출장 중이 고혹적인 물의 도시를 찾았다. 전시 장소를 정확히 확인하지 않은 채 산마르코 광장을 지나던 중, 은근히 시선을 붙잡는 교회 문 앞에서 자석에 끌리듯 발걸음을 멈췄다. 바로 월리스 찬의 〈Vessels of Other Worlds〉(5월 8일~10월 18일)가 개최되고 있는 작은 교회, 산타마리아 델라 피에타였다. 고색창연한 종교적 공간 안에서 먼저 시야에 들어온 그의 티타눔 작업은 신비로웠다. 하나의 조각 안에서 여러 얼굴이 겹쳐 보이고, 티타눔 표면의 오묘한 색과 반사가 시선과 위치에 따라 달라지면서 낯설고도 몽환적인 풍경을 만들어냈다. 오래된 종교적 공간과 현대적인 조각이 빚어내는 색다른 매혹이었다. 그리고 전시장 안으로 끝까지 들어가자 3개의 작은 화면에서는 또 다른 장면이 흘러나오고 있었다. 두 달 남짓의 시차를 두고 이어진 이원 전시의 설치를 막 마친 롱 뮤지엄(웨스트 번드)의 실시간 모습이었다. 베니스에서 마주한 그의 세계가 시공간을 달리한 상하이에서는 어떤 모습으로 펼쳐질까. 이 설렘을 안고 몇 주 뒤 상하이로 향했다.



1 티타눔을 소재로 한 선구적 조각 작업으로 잘 알려진 아티스트 월리스 찬. 옆 작품은 높이 10m가 넘는 'Rebirth'. Photo by Tian Fangfang 2 〈Vessels of Other Worlds〉 베니스 전시에서 선보인 작품. 올해 70세를 맞은 월리스 찬의 전시는 베니스와 상하이에서 동시에 열리고 있다. Photo by Federico Suter 3 상하이 롱 뮤지엄에서 진행 중인 월리스 찬 전시의 하이라이트, 3개의 기념비적 티타눔 조각 작품 중 'Birth'(위에서 내려다본 모습). Photo by Tian Fangfang 4 롱 뮤지엄 〈Vessels of Other Worlds〉 전시 도입부. Photo by JYPHOTO 5 두 도시에서 열리는 전시에 앞서 '베니스 삼부작'의 여정을 이어가며 작가와 큐레이터로 수년간 호흡을 맞췄은 월리스 찬(왼쪽)과 제임스 퍼트넘(오른쪽). Photo by EM Studio 6 상하이 전시의 하이라이트 색선에 이르기 전, 태아가 자궁에 머무는 여정을 연상시키는 어두운 통로가 펼쳐진다. Photo by Tian Fangfang

지, 서양의 예술 전통은 장식적 도상이나 특정한 종교적 메시지가 아니다. 그는 그것들을 '인간이 미지의 세계에 다가가기 위해 만들어진 언어'라고 말한다. 성장하면서 다양한 영적 세계를 접한 그는 종교 역시 자신에게는 하나의 철학이라고 설명한다. 중요한 것은 종교의 이름이나 분류가 아니라, 그 이름이 어떤 질문을 열어주는가에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생각은 이번 이원 전시의 제목인 〈Vessels of Other Worlds〉에도 이어진다. '배설(vessel)', 즉 용기는 무엇인가를 담는 그릇이지만, 그에게 그것은 고정된 무엇인가를 담아두는 도구가 아니다. '배설은 열려 있는 상태로 남아 있습니다. 비어 있음은 가능성이기 때문입니다.' 이 말은 상하이에서 3개의 거대한 배설을 마주했을 때 더욱 구체적인 의미를 띠게 된다. 하지만 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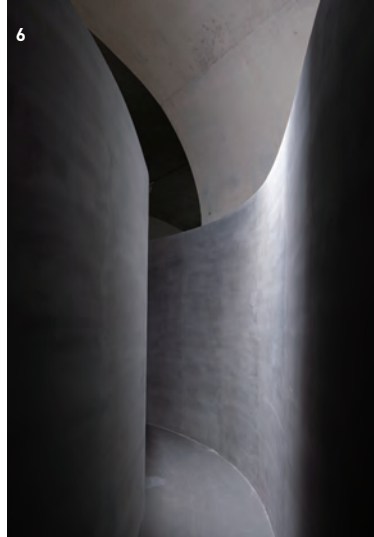
산 마르코 광장 한복판의 변잡함에서 벗어나 작은 교회 안으로 들어섰을 때, 인상적이었던 건 오래된 종교 공간이라는 장소성이었다. 하지만 월리스 찬(b. 1956)은 특정 종교의 상징을 재현하기보다 탄생과 죽음, 변화와 재생, 인간과 우주 같은 근원적 질문을 서로 다른 문화의 언어를 통해 풀어낸다. 불교와 도교, 기독교적 이미지가 그의 작업에서 하나의 종교적 선언으로 수렴하기보다, 인간이 보이지 않는 세계를 이해하기 위해 만들어진 서로 다른 사유의 방식으로 만나는 것이다. 실제로 그는 서로 다른 문화와 종교의 전통을 바라보는 자신의 태도를 이렇게 설명했다. "문화마다 같은 근본적 질문을 던지는 서로 다른 방식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질문은 "나는 누구인가? 나는 왜 태어났는가? 고통을 어떻게 마주해야 하는가? 죽음을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가? 인간의 내면은 어떻게 변화할 수 있는가?"로 이어진다. 그에게 불교 철학이나 기독교적 이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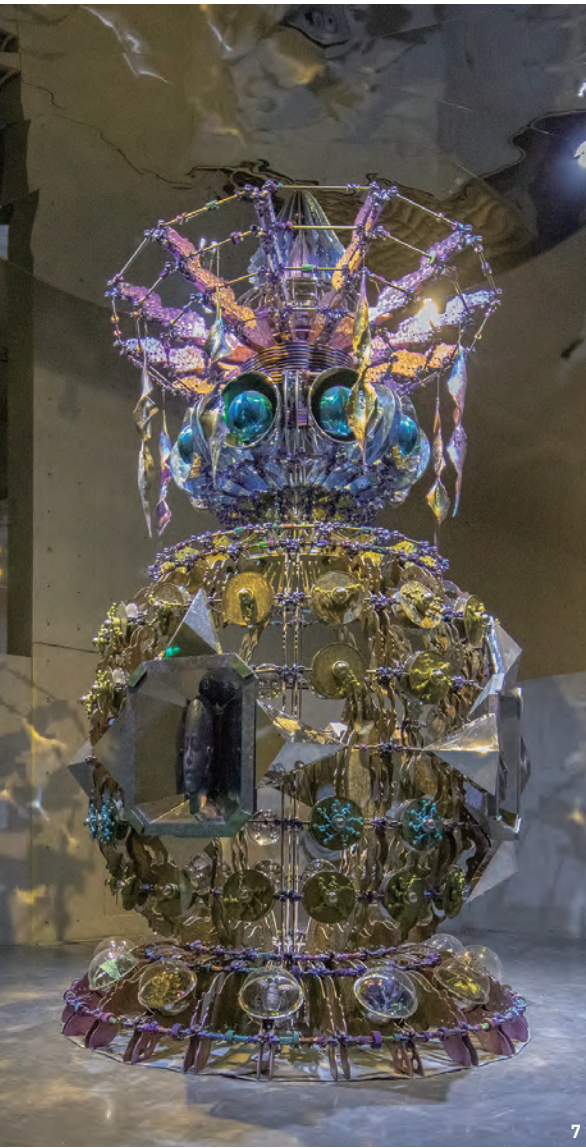
전에 돌아볼 필요가 있다. 이처럼 대형 조각을 만들어 온 작가의 시작점은 의외로 작았다. 손바닥 안에 들어오는 젠스톤(gemstone), 그리고 그 안에 새겨 놓은 하나의 얼굴이었다.

하나의 얼굴에서 여러 개의 얼굴로

월리스 찬의 출발점을 이해하려면 1970년대 홍콩으로 돌아갈 필요가 있다. 중국 본토에서 홍콩으로 이주한, 넉넉지 않은 가정에서 자란 그는 여러 일을 전전하다 1973년, 열여섯 살에 보석 조각 공방의 견습생이 됐다. 당시 홍콩에서는 중국 공예품의 서구 수출이 활기를 띠었지만, 반복적인 작업에 답답함을 느낀 그는 9개월 만에 공방을 나왔다. 부모에게 1천 홍콩달러를 빌려 조각 기계와 공작석 두 점을 마련하고, 가족이 살던 건물의 비상계단에 접시식 테이블을 놓고 자신의 작업을 시작했다. 다른 예술 형식에도 관심이 많았던 그는 사진 전시에서 다중 노출로 하나의 얼굴이 반복되어 나타나는 이미지를 보고 그 원리를 보석 조각에 적용할 수 있을지 궁금해했다. 그러다가 투명한 젠스톤 뒤쪽에 점 하나를 새기면 앞에서는 5개의 점으로 보이는 현상을 발견했다. 하나의 조각과 4개의 반사가 만들어진 이미지였다. 그가 '역으로 생각해 여러 개의 반사를 만들어내는' 방식이라고 설명하는 '월리스 컷(Wallace Cut)'의 탄생



월리스 찬이 다루는 작업도, 전시 공간도 크기는 달라지지만, 하나의 세계 안에 또 다른 세계가 들어있고, 하나의 형상이 보는 위치와 관점에 따라 여러 모습으로 열릴 수 있다는 생각은 그대로 이어진다



이였다(1987년). 그는 이 첫 발명을 '아무것도 없는 데서 모든 것이 나올 수 있다는 사실을 처음 진정으로 깨달은 순간'이라고 회고한다. 그때부터 월리스 찬에게 재료는 단순한 작업 수단을 넘어선다. 젠스톤 조각에서 시작한 탐구는 주얼리와 조각, 설치로 확장됐고, 그 과정에서 티타눔, 도자기, 철, 흑요석 등 다양한 재료를 만났다. 그는 이를 한 재료를 버리고 다른 재료로 옮겨간 과정으로 설명하지 않는다. 각각의 재료가 다른 문을 열어준 긴 여정에 가깝다는 것이다.

재료를 정복하는 대신, 함께 춤추다

"젠스톤은 저에게 빛을 가르쳐주었습니다. 주얼리의 세계는 친밀함을, 티타눔은 시간과 규모를 알려줬죠. 도자기는 변화를 가르쳐줬고요." 특히 티타눔은 그의 조각 세계를 결정적으로 확장한 재료다. 2000년 티타눔에 관심을 갖기 시작한 그는 수년간 깊이 있는 연구와 실험을 거듭했다. 강하고 가벼우며 부식에 강한 이 금속은 그에게 시간과 영속성에 대한 사유를 가능하게 했을 뿐 아니라, 기존의 조각 재료로는 구현하기 어려웠던 색과 빛, 규모와 구조를 탐구할 수 있는 강력한 조형적 수단이 됐다. 그러나 그는 티타눔을 '정복'한다고 표현하지 않는다. 대신 '정복하는 것이 아니라 점차 이해하고, 함께 작업하며, 궁극적으로 리듬을 찾는 것'이라고 말한다. 티타눔은 강하고 완고한 금속이지만, 그 저항을 억누르는 대신 성질을 이해하고 함께 작업하는 과정에서 자신만의 조형 언어를 찾아간다는 것이다. 그에게 재료는 단순히 작품을 구현하는 수단이 아니라, 저마다 다른 시간과 가능성을 지닌 협업의 대상이다. 티타눔과 철의 대비 역시 재료에 대한 그의 사유를 보여준다. 가볍고 강한 티타눔과 무겁고 부식되는 철은 서로 다른 힘의 관계를 이루며, 재료 자체가 시간과 변화, 영속성과 소멸을 이야기하는 언어가 된다. 특히 티타눔은 그가 말하듯 '영원히 가장 가까운' 재료로서, 지상의 물질성과 초월적 시간성을 연결하는 매개가 된다.

티타눔을 만나면서 그의 작업은 주얼리의 섬세한 규모를 넘어 조각과 설리로 확장되었다. 그 여정은 베니스에서 선보인 'Titans'(2021), 'Totem'(2022), 'Transcendence'(2024)로 이어졌다. 세 전시에서 함께한 큐레이터 제임스 퍼트넘과의 협업은 월리스 찬의 작업을 하이 주얼리의 영역 넘어 국제 미술계에 각인시키는 중요한 계기가 되었고, 그 협업은 월리스 찬이 70세를 맞이한 것을 기념해 진행되는 이번 베니스·상하이 이원 전시로 이어졌다.

상하이에서, 작품 안으로 들어가다

롱 뮤지엄 웨스트 번드에서 펼쳐지고 있는 상하이 전시(7월 18일~10월 25일)에서는 그 확장의 시간을 관람객의 온 감각으로, 동선을 따라 체험할 수 있다. 작품의 크기와 공간의 깊이, 빛과 그림자, 그리고 작품 사이를 걸어가는 움직임까지 전시의 일부가 된다. 입구에서 얼굴과 인체를 떠올리게 하는 조각들을 지나면 'Titans', 'Totem', 'Transcendence'로 이어지는 이른바 '베니스 삼부작' 전시와 마주하게 된다. 월리스 찬이 베니스를 무대로 수년에 걸쳐 선보인 대형 작업을 한 전시에서 제대로 접할 수 있는 기회다. 이어 곡선미가 돋보이는 어두운 통로를 따라 발걸음을 옮기면 공간이 점차 넓어지고, 마침내 3개의 거대한 배설 'Birth', 'Growth', 'Rebirth'가 차례로 모습을 드러낸다. 큐레이터 제임스 퍼트넘이 처음부터 의도한 것도 이러한 여정이었다. 베니스에서 작품을 하나의 장면으로 바라봤다면, 상하이에서는 작품 사이를 직접 통과하며 그의 세계 안으로 들어가게 되는 셈이다. 전시의 하이라이트인 세 '배설' 작업은 갈수록 규모가 커진다. 가이드도 투어에서 들은 설명에 따르면 마지막 작품 'Rebirth'는 처음에는 10m 높이로 계획됐지만, 결국 11m까지 확장됐다. 그리고 이를 지나면 전시는 다시 작은 세계로 돌아간다. 퍼트넘이 설명하듯 이 지점에서는 태아를 연상시키는 작은 조각과 정교한 주얼리 색선이 등장하면서 시선의 크기가 다시 전환된다. 이곳에는 롱 뮤지엄을 설립한 류이첸·왕웨이 부부의 걸

7 월리스 찬의 상하이 전시에서 선보인 높이 7m에 이르는 조각 작품 'Birth'. 생명의 탄생과 새로운 존재의 출현을 상징하며, 미세한 물질과 에너지가 거대한 형상으로 응축되는 순간을 표현한다. Photo by JYPHOTO 8 높이 8m의 'Growth'는 끊임없이 변화하고 확장하는 생명의 에너지를 형상화했으며, 물질과 정신이 서로 얽혀 성장하는 과정을 담았다. Photo by Tian Fangfang 9 높이 10m가 넘는 'Rebirth'는 소멸 이후 다시 태어나는 생명의 순환과 재생, 그리고 초월의 가능성을 탐구한다. Photo by JYPHOTO 10 상하이 전시의 마지막 색선을 장식하는, 99마리의 나비를 활용한 설치 작품. '99'는 장수와 지속성을 상징하며, 나비의 변화와 비행을 통해 작가 자신의 예술적 여정도 담아냈다. Photo by 고성연 ※1~9 이미지 제공_Long Museum

랙선에 포함된 작품도 함께 자리한다. 대형 설치의 클라이맥스 뒤에 미세한 세계를 배치함으로써, 서로 다른 규모의 작업이 하나의 흐름으로 연결된다. 퍼트넘은 이 지점에서 커다란 조각과 작은 주얼리가 서로 별개의 작업이 아니라는 점에 주목한다. 주얼리는 '미미어저 조각'처럼 읽을 수 있으며, 매크로코즘과 마이크로코즘을 오가는 작가의 철학도 이 동선 속에서 드러난다는 것이다. 월리스 찬이 다루는 작업도, 전시 공간도 크기는 달라지지만, 하나의 세계 안에 또 다른 세계가 들어있고, 하나의 형상이 보는 위치와 관점에 따라 여러 모습으로 열릴 수 있다는 생각은 그대로 이어진다. 작은 보석을 다루던 손이 거대한 구조물을 만들게 된 것은 규모의 확장이라기보다, 시선과 사유의 확장이었을 것이다. 글 고성연(상하이·베니스 현지 취재)





올해도 세계적인 아트 페어 '프리즈 서울(Frieze Seoul)' 2026(9. 2~5)과 국내 최대 아트 페어 '키아프 서울(Kiaf SEOUL)' 2026(9. 2~6)이 나란히 막을 올렸다. 두 아트 페어가 열리는 9월 첫째 주에는 코엑스는 물론 삼청동과 한남동, 청담동, 을지로까지 도시 곳곳이 예술로 물든다. 미술관과 갤러리, 대안 공간, 문화 예술 기관은 한 해 가장 중요한 전시를 이 시기에 맞춰 선보이고, 해외 컬렉터와 큐레이터, 미술관 관계자도 서울을 비롯해 다른 도시까지 발품을 팔며 다닌다. 지난 5년 동안 가장 크게 달라진 것은 바로 이 풍경이다. 서울은 이제 9월이면 세계 미술계가 주목하는 아트 위크(Art Week)를 진행하는 도시가 됐다.



도시를 무대로 펼쳐지는 예술 축제
이전에도 도시 곳곳을 무대로 한 미술 행사는 꾸준히 생겨났지만, 서울의 문화적 풍경을 하나의 아트 워크로 묶어 세계에 각인시키는 데는 프리즈 서울의 역할이 컸다. “처음부터 보다 폭넓은 관객과 소통하고, 서울이 지닌 풍부한 문화 예술 생태계를 세계에 알리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좋은 아트 페어는 단순히 페어장에서 열리는 행사가 그치지 않고, 개최 도시의 문화와 긴밀하게 연결되어 그 일부로 자리 잡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패트릭 리 프리즈 서울 디렉터의 말처럼 프리즈 서울과 키아프 서울은 지난 5년 동안 아트 페어장을 넘어 도시 전체를 하나의 예술 플랫폼으로

키아프 서울(Kiaf SEOUL) × 프리즈 서울(Frieze Seoul) 2026

아트 페어를 넘어, 도시 전체가 미술관이 되는 한 주

팬데믹 이후 일상 회복이 본격화된 2022년, 국내 미술계의 가장 큰 화두는 글로벌 아트 페어 브랜드인 프리즈의 서울 진출이었다. 특히 키아프 서울과 손잡고 공동 개최에 나선다는 발표는 국내 미술 시장에 새로운 전환점이 될 것이라는 기대와 함께 여러 우려를 불러일으켰다. 당초 5년을 약속했던 두 아트 페어의 동행은 올해 일단락된다. 양측은 최근 파트너십을 2028년까지 연장한다고 발표했지만, 코엑스 리뉴얼 공사에 따라 내년부터 키아프 서울은 코엑스에 남고, 프리즈 서울이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로 개최지를 옮기며 또 다른 국면을 맞게 됐다. 첫 번째 여정을 마무리하는 지금, 지난 5년의 동행이 서울과 한국 미술계에 무엇을 남겼는지 돌아본다.

1 전년도 프리즈 서울 전시장 모습. 올해로 제5회를 맞이한 프리즈 서울은 키아프 서울과 함께 아트 페어를 넘어 도시 전체를 예술 축제의 무대로 확장하는 계기를 만들었다. Photo by WeCap Studio. Courtesy of Frieze.
2 올해 프리즈 필름은 부산비엔날레와 협업해 진행하며 국내 주요 미술 행사와의 연계를 강화했다. Natasha Tontey, 'Macho Mystic Meltdown: Chapter 1: Oikouménē' 2025. Full HD video, 16 min 9 sec, colour, 16:9, stereo. Courtesy: the artist
3 제1회 프리즈 서울 개최 이듬해인 2023년 yBa의 산실이라 불리는 세계적인 갤러리 화이트 큐브가 서울 도산공원 인근에 지점을 마련했다.
4 작년에 한국에 처음 진출한 세계적인 디자인 플랫폼 디자인마이에미 서울 2026 도 아트 페어 주간에 진행되며 도시를 한층 더 뜨겁게 달굴 예정이다.

만들기 위한 다양한 시도를 이어왔다. 프리즈 서울은 '프리즈 뮤직', '프리즈 라이브' 등 음악, 퍼포먼스 등을 결합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페어장 밖에서 선보여왔다. 2024년부터는 부산·광주비엔날레와의 협력을 통해 국내 주요 미술 행사와의 연계도 강화해왔는데, 그 성과 가운데 하나는 올해 선보이는 '부산비엔날레 × 프리즈 필름 서울 2026'이다. 지난해 문을 연 프리즈 하우스 서울은 오래된 자택을 전시장으로 탈바꿈시킨 프리즈의 문화 거점이다. 이번 아트 주간에는 일본 유메코보 갤러리와 미국 폴라 쿠퍼 갤러리가 참여해, 평소 국내에서는 만나기 어려운 해외 유명 갤러리의 전시를 선보인다. 키아프 서울 역시 페어장 밖으로 활동 영역을 넓히며 다양한 프로그램을 이어왔다. 인천국제공항 특별전〈We Connect, Art & Future, Kiaf and INCHEON AIRPORT〉는 프리즈 서울 출범 이전인 2021년부터 이어져온 프로젝트지만, 해외 컬렉터와 미술 관계자의 서울 방문이 늘어나면서 한국 미술을 소개하는 창구로서의 의미도 한층 커졌다. 또 2023년부터 유명 작가들 발굴·지원하는 '키아프 하이라이트'를 운영하며 아트 페어를 넘어 미술 생태계를 지원하는 플랫폼으로 역할을 키워왔다. 도시 전역으로 퍼진 아트 워크의 축제성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는 9월 아트 주간에 진행되는 갤러리 야간 개장 프로그램 '네이버후드 나잇'일 것이다. 2022년 한남과 삼청에서 시작해 청담과 을지로로 참여 지역을 넓혀온 이 프로그램은 지역별 갤러리들이 연계해 서울의 갤러리 신을 하나의 흐름으로 경험하도록 한다. 이외에도 도시 곳곳에서 자발적으로 펼쳐지는 수백여 개의 다채로운 행사는 서울 문화 생태계가 지닌 역동성과 잠재력을 드러낸다.

서울로 모이는 해외 미술계 외 문화 브랜드

해외 주요 갤러리의 진출도 미술계의 외연을 넓히며 변화를 이끌어냈다. 2021년 타데우스 로팍을 시작으로 2022년 글래스톤과 페로탕 등이 잇달아 서울에 문을 열거나 새로운 공간을 선보였다. 타데우스 로팍 서울은 2023년 공간을 확장했고, 글래스톤 서울도 올

해 한남동으로 이전하며 규모를 키웠다. 화이트 큐브도 2023년 서울에 정식 진출했다. 가고시만 역시 2024년과 2025년 연이어 서울에서 팝업 전시를 선보였으며, 올해는 하우저앤웬스가 APMA 캐비닛에서 클렌 라이곤 개인전〈Black Moons〉를 여는 등 해외 갤러리들의 서울 활동도 갈수록 다양해지고 있다. 미술계 밖에서도 서울의 아트 워크를 기념한 움직임이 이어졌다. 럭셔리 브랜드와 디자인 플랫폼 역시 앞다퉁 문화 프로젝트를 선보이며 서울의 아트 워크에 합류하고 있다. 일례로 로에베는 올해 로에베 재단 공예상 수상자인 박종진의 개인전〈Strata of Time: 시간의 층위〉를, 불가리는 주한 이탈리아대사관, 주한 이탈리아문화원과 함께 한국 작가 이수경과 이탈리아 작가 안드레아 프란콜리노의 작품을 소개하는 'Italy at Frieze × Bvlgari: The Golden Trace' 행사를 연다. 지난해 서울에 첫발을 내디딘 디자인마이에미도 올해 '디자인마이에미 서울 2026'으로 규모를 확대한다. 그렇다면 지난 5년 사이 해외 미술계의 서울에 대한 관심은 얼마나 커졌을까? 수치로도 그 변화를 확인할 수 있다. 2022년 첫 프리즈 서울에는 20개국 1백10여 개 갤러리가 참가했지만, 올해는 30개국 1백25개 이상의 갤러리가 참여한다. 방문객 수는 매년 7만 명 안팎을 유지하는 가운데 해외 방문객의 출신 국가는 2023년 36개국에서 2025년 48개국으로 확대됐다. 본페어의 외형적 규모가 크게 달라지지 않은 가운데 국제적 네트워크는 꾸준히 넓어지고 있는 셈이다.



아트 워크가 우리에게 남긴 과제

그러나 도시의 성장이 곧 시장의 성장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팬데믹 이후 급성장했던 글로벌 미술 시장은 2023년부터 조정 국면에 들어섰다.〈The Art Basel and UBS Global Art Market Report 2026〉에 따르면 시장 규모는 2022년 약 6백81억 달러에서 2023년 약 6백52억 달러, 2024년 약 5백75억 달러로 2년 연속 감소했다. 2025년에는 약 5백96억 달러로 전년 대비 4% 증가했지만, 2022년 정점에는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다. 한국 역시 예외가 아니다. 프리즈 서울도 출범 초기의 폭발적인 열기와 비교하면 시장 분위기가 달라졌다. 미술계에서는 참가 갤러리 수보다 얼마나 실질적인 거래가 이뤄졌는지, 새로운 컬렉터를 얼마나 확보했는지 등이 더 중요한 지표라는 목소리가 나온다. 시간이 흐르며 공동 개최의 상징성이 다소 떨어졌다는 점도 생각해볼 부분이다. 출범 당시에는 '키아프 프리즈(Kiaf+Frieze)'라는 이름도 자주 언급됐지만, 최근 미술계 안팎에서는 두 페어가 열리는 기간을 '프리즈 워크'라고 부르는 경우가 더 많아졌다. 같은 시기에 열리는 두 행사의 시너지가 서울의 아트 워크를 형성하는 기반이 된 것은 분명하지만, 대외적으로는 프리즈 서울을 중심으로 인식되는 경향도 나타난다. 이런 흐름 속에서 내년부터 프리즈 서울이 개최지를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로 옮기는 것은 단순한 장소 변경 이상의 의미를 지닌다. 하루에 두 페어를 모두 둘러보기는 어려워질 가능성이 커졌고, 관람객들은 자연스럽게 선택과 집중을 해야 하는 상황을 맞았다. 그런 만큼 두 페어 역시 공동 개최라는 틀 안에서 각자의 정체성과 차별화된 매력을 선명하게 보여줄 필요가 있다. 물론 이를 위기로만 볼 필요는 없다. 특히 이러한 변화는 키아프 서울이 자신만의 강점을 더욱 확실히 드러낼 새로운 기회가 될 수도 있다. 실제로 국내 아트 페어 생태계를 들여다보면 규모 경쟁 대신 각자의 강점을 앞세운 차별화 전략을 모색하고 있음이 눈에 띈다. 기존 화랑미술제에 더해 수원에서 별도 에디션을 선보인 '화랑미술제 in 수원', 소수 정예 큐레이션으로 존재감을 키운 'ART OnO'가 대표적인 사례다. 이외에도 올해 키아프 프리즈 주간에 첫선을 보이는 대안 아트 페어 '파빌론 서울'은 융산 KCS에서 규모 경쟁보다 협업과 '느린 성장'을 내세우며 또 다른 방향을 제시한다. 이는 관람객과 컬렉터의 선택지를 넓히며 한국 미술 시장의 다양성과 지속 가능성을 높이는 방향이기도 하다.

5 지난해 서울에 지점을 낸 독일 출신 갤러리 마이어리거울프가 올해 프리즈 서울에서 선보이는 작품, Marcel Duchamp, 'Rotoreliefs', 1953, set of 6 discs, 20×20cm.
6 프리즈 서울 2026에 구사마 야요이와 인연이 깊은 오타 파인 아츠도 참가한다. Yayoi Kusama, 'PORTRAIT YAYOI-CHAN', 2014, Acrylic on canvas, 145.5×112cm. © YAYOI KUSAMA, courtesy of Ota Fine Arts
7 MMCA 서울의 서울박스에서 진행 중인 MMCA×LG OLED 시리즈 전시는 장소성과 공공성을 모두 지닌다. 김 크리스틴 선, '완고한 바위, 무모한 싸움들', 2026, 페인트, 접착식 바닐, 단채널 영상, 사운드, 가변 크기. 사진 조준용
8 올해 키아프 하이라이트 세미파이널리스트 중 한 명으로 이재영이 선정됐다. 이재영, '당신 공기', 2023, 한지에 먹, 148×280cm.
9 아트 페어 기간 중 프리즈 하우스 서울에서는 폴라 쿠퍼 갤러리의 그룹전이 진행된다. Sarah Charlesworth, 'Homage to Nature', 1995, Cibachrome print with mahogany frame, 151.8×116.2cm. © The Estate of Sarah Charlesworth. Courtesy Paula Cooper Gallery, New York. Photo: Steven Probert Studio
10 전시 〈MMCA 과천 40주년 빛의 상상들〉에서는 관람객이 직접 만지거나 있을 수 있는 작품을 선보이는 '야외 조각 공원 프로젝트'를 진행한다. 김하늘, '소티로폼 소파 (아상자)', 2026, 페스티로폼 아상자, 폴리우레아 코팅, 86×79×73cm(x40), 가변 설치, 국립현대미술관 제작 지원.



'도시로 나온 아트 페어'가 '시민 예술의 경험'이 되려면

아트 페어가 페어장을 넘어 도시 전체로 확장된 지금, 예술의 공공성 역시 관람의 문턱을 낮추고 시민의 참여를 넓히는 방식으로 나아가고 있다. 국립현대미술관(MMCA) 서울과 과천에서 진행 중인 두 전시는 이러한 방향을 보여주는 사례다. 먼저 MMCA 서울에서 열리는 'MMCA × LG OLED 시리즈 2026: 김 크리스틴 선 〈완고한 바위, 무모한 싸움들〉(7. 31~11. 29)'은 관내 전시 공간 '서울박스'를 위해 제작한 신작으로 구성된 전시다. 세로 8.1m, 가로 5.4m 규모의 곡면 OLED 디스플레이를 통해 상영되는 작가의 영상 작업과 드로잉을 바탕으로 한 그래픽이 공간 전체를 하나의 작품으로 완성한다. 특정 공간을 전제로 제작한 장소 특정적 작업이면서도 누구나 무료로 관람할 수 있다는 점에서, 장소성과 공공성을 함께 실현한 사례다.〈MMCA 과천 40주년: 빛의 상상들〉(7. 10~11. 29, '잔상'은 10월 31일까지) 역시 비슷한 맥락에 있다. 전시는 '광경', '잔상', '머무는 자리' 등 3개의 파트로 구성되는데, 이 가운데 '머무는 자리'는 관람객이 직접 앉고 쉬며 이용할 수 있는 작품을 설치한 조각 공원 프로젝트다. 작품을 감상의 대상으로만 두지 않고 시민의 이용과 경험을 전제로 했다는 점에서 기존 공공 미술의 기능을 확장한 시도다. 두 전시는 서울에 형성된 아트 워크가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에 단서를 던져준다. 아트 페어가 도시의 지형을 바꿨다면, 이제 아트 워크의 다음 과제는 그 변화가 예술과 거리를 두던 시민에게까지 닿도록 만드는 일이다. 그 가능성은 이미 곳곳에서 싹을 틔우고 있다. 글 양혜연(국립현대미술관 제작 지원).





A Vibrant Evolution



다이버를 위한 컬러 워치,
로열 오크 오프쇼어 다이버

오데마 피게에서는 올해 초에 새로운 컬러 베리에이션의 지름 42mm 로열 오크 오프쇼어 다이버(Royal Oak Offshore Diver)의 세 가지 버전을 선보이며 브랜드의 미학과 색상에 대한 창의성과 다양성을 또 한번 증명했다. 이 세 가지 시계에는 셀프와인딩 칼리버 4308을 탑재했으며, 300m 방수 기능으로 하이엔드 워치다운 품격까지 갖췄다. 이전에도 혁신과 창의성을 탐구하는 브랜드답게 쉬이 생각하지 못할 파격과 생동감 넘치는 컬러 조합의 로열 오크 오프쇼어 다이버 컬렉션으로 로열 오크 혹은 다이버 워치 애호가들의 기대를 한 몸에 받았던 오데마 피게지만, 이번 세 가지 워치의 컬러 조합은 조금 더 특별하다. 컬러를 전면에 내세우기보다 포인트적 요소로 활용해 세련미를 더하고, 보편 불수록 더 빠져서는 매력을 선사한다. 세 가지 모델 모두 로열 오크 특유의 메가 타피스리(Méga Tapisserie) 무늬의 다이얼을 그대로 매치했으며, 두 가지 모델은 블랙 다이얼을 적용하고, 나머지 한 가지 모델은 짙은 청록색 다이얼로 완성했다. 여기에 내부 베젤의 숫자와 0~15분 영역에만 각각 핑크와 터퀴즈, 그리고 화이트로 포인트를 주어 감각적인 느낌을 자아낸다. 핑크 색상의 워치에는 화이트 컬러의 러버 스트랩을, 터퀴즈 색상의 시계와 짙은 청록색 다이얼 버전의 시계에는 같은 컬러의 러버 스트랩을 제공한다. 전부 스틸 케이스로 완성했으며, 짙은 청록색 다이얼 버전만 18K 골드 소재의 핸드와 아워 마커로 완성해 소재와 색채의 절묘한 결합을 보여준다. 아워 마커와 핸드는 아랑 코팅 처리해 다이버 워치의 요소를 빼놓지 않았으며, 3시 방향에 날짜창을 배치해 가독성을 높였다. 스포티하고 액티브한 감성에 클래식함과 세련미까지 갖추었으며, 첨단 기술과 전통적 미감의 결합으로 탄생한 새로운 로열 오크 오프쇼어 다이버 에디션은 새로운 디자인 방향을 탐구하고 스포츠 시계의 규범을 발전시키려는 오데마 피게의 의지를 반영한다. 그뿐 아니라 로열 오크와 다이버 워치의 감성을 사랑하는 워치 애호가들을 위한 또 하나의 헌사다.

“오늘날 새롭게 선보이는 로열 오크 오프쇼어는 생동감 넘치는 여름 색상으로 생명력을 얻었습니다. 이 색채는 오프쇼어의 정신을 역동적이고 개성적인 스타일의 현대적 표현으로 해석합니다”
- 일라리아 레스타(Illaria Resta, 오데마 피게 최고 경영자)

전설적인 시계 디자이너 제랄드 젤타(Gérald Genta)가 디자인한 로열 오크의 시그니처, 팔각 디자인을 계승하면서도 한층 스포티한 느낌을 강조한 로열 오크 오프쇼어 다이버. 올초 생동감 넘치는 세 가지 새로운 색상의 신제품을 선보인 데 이어, 지난 6월 출시한 로열 오크 오프쇼어 셀프와인딩 크로노그래프 버전의 여섯 가지 신제품으로 더 컬러풀하고 익스트림한 스포츠 워치 감성을 찾는 남녀 시계 애호가들의 마음을 두드린다.

오데마 피게(Audemars Piguet)는 지난 2월 로열 오크 오프쇼어 다이버의 세 가지 버전을 새로이 선보인 데 이어 올여름 새로운 로열 오크 오프쇼어 컬렉션으로 1993년 출시 당시의 대담하고 다소 도발적인 정신을 되살린다. 에마누엘 게(Emmanuel Gueit)가 디자인한 이 컬렉션은 1980년대의 폭발적인 창의성과 그 이름에 영감을 준 고성능 오토 경주에서 탄생했다. 당시에는 스포티하고 대담한 디자인, 특대형 비늘, 노출된 고무 가스킷, 강인한 미학 덕분에 ‘야수(The Beast)’라는 별명을 얻기도 했다. 그 후 30년이 넘는 세월이 흘렀지만 압도적인 크기와 당당한 존재감으로 시선을 사로잡는 것뿐 아니라 여전히 기술적 대담함과 과감한 자기표현의 상징으로 남아 있으며, 스틸을 추구하는 새로운 세대의 사랑을 받고 있다. 오데마 피게는 또 한번의 새로운 컬러 조합과 소재 및 사이즈로 신제품들을 선보이며 오프쇼어를 그 어느 때보다 활력 넘치게 만든다. 프랑스 리비에라(Riviera) 해안에서의 휴가, 해변에서 보내는 스포티한 오후, 또는 경주용 보트에서의 모험을 언제나 함께할 준비가 되어 있으며 공동의 에너지, 자신감, 현재를 즐기는 마음가지가 원동력이 되는 역동적 삶과 함께할 새로운 로열 오크 오프쇼어 컬렉션을 소개한다.

대담한 자유로움, 42mm 로열 오크 오프쇼어 셀프와인딩 크로노그래프

로열 오크 오프쇼어 다이버 세 가지 모델을 발표한 이후 오데마 피게는 올여름을 위해 또 한 장의 카드를 꺼내 든다. 바로 지난 6월 공개한, 여름 색상을 담은 세 가지 새로운 42mm ‘로열 오크 오프쇼어 셀프와인딩 크로노그래프(Royal Oak Offshore Selfwinding Chronograph)’가 그 주인공이다. 1993년 에마누엘 게가 고성능 오프쇼어 경주용 보트에서 영감받아 디자인한 이 워치의 DNA와 견고한 소재, 정교한 마감 등의 디테일은 그대로 유지하되 오데마 피게가 새롭게 해석한 생동감 넘치는 색상 조합으로 올여름 또 한번 선보이게 된 것. 다이얼은 역시 아이코닉한 메가 타피스리 다이얼로 제공하며 각 핑크, 오렌지, 터퀴즈와 옐로로 포인트를 주었다. 이 컬러들은 타키미터 눈금과 9시 및 12시 방향의 카운터에 입혀 경주용 보트의 계기판을 연상시킨다. 그리고 크로노그래프 워치의 핵심인 2시 방향 고무 소재의 ‘시작-중지’ 버튼까지 같은 컬러를 적용해 포인트를 더했다. 큼직한 아라비아숫자는 가독성을 더욱 향상시키는 동시에 스포티한 개성을 한층 더 강화한다. 핑크로 강조한 워치는 블랙 다이얼에 스테인리스 스틸 소재를 매치했으며, 옐로와 터퀴즈 색상이 대비를 이루는 두 번째 모델은 다크 그레이 다이얼을 매치해 상색의 조화를 꾀했다. 마지막으로 오렌지색을 매치한 모델은 스테인리스 스틸 소재에 실버 색조를 더한 다이얼로 입체적으로 표현했으며, 이는 생동감을 불어넣는 역할을 한다. 각 모델에는 해당 모델의 컬러 팔레트와 어울리는 질감을 살린 교체 가능한 송이(지갑) 스트랩을 장착했다. 세 가지 워치 모두 일체형 플라이백 크로노그래프 무브먼트인 칼리버 4404로 구동하며, 칼럼 휠과 22K 핑크 골드 진동 추 같은 정교한 부품을 사파이어 케이스 백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대담한 색상의 이 새로운 모델들을 통해 로열 오크 오프쇼어는 특유의 스포티하고 자유로운 개성을 더욱 확고히 하며 탁 트인 바다를 향해 나아간다.



- 1 짙은 청록색의 메가 타피스리 다이얼에 아랑 코팅 처리한 아틀라케 장식의 화이트 골드 아워 마커와 핸드로 완성한 로열 오크 오프쇼어 다이버.
- 2 메가 타피스리 무늬의 블랙 다이얼에 터퀴즈 색상의 영역 표시와 스트랩을 매치한 로열 오크 오프쇼어 다이버.
- 3 블랙 메가 타피스리 다이얼에 핑크 컬러 포인트와 화이트 러버 스트랩을 제공하는 로열 오크 오프쇼어 다이버.
- 4 티타늄 케이스에 다크 그레이 메가 타피스리 다이얼을 매치하고 터퀴즈와 옐로 컬러로 아워 마커 및 크로노그래프에 포인트를 준 로열 오크 오프쇼어 셀프와인딩 크로노그래프.
- 5 스테인리스 스틸 케이스에 실버 색조 다이얼로 완성하고 오렌지와 블랙 컬러 조합으로 선보이는 로열 오크 오프쇼어 셀프와인딩 크로노그래프.
- 6 스테인리스 스틸 케이스에 블랙 메가 타피스리 다이얼과 핑크 크로노그래프 세컨드 핸드 및 9시, 12시 방향의 카운터 핸드로 완성한 로열 오크 오프쇼어 셀프와인딩 크로노그래프.
- 7 지름 37mm 티타늄 케이스에 약 1캐럿에 달하는 32개의 브릴리언트 컷 다이아몬드를 세팅한 스테인리스 스틸 베젤과 핑크 컬러 다이얼 및 스트랩으로 완성한 로열 오크 오프쇼어 셀프와인딩 크로노그래프 37mm.
- 8 티타늄 케이스에 터퀴즈 타피스리 다이얼과 스트랩을 매치한 로열 오크 오프쇼어 셀프와인딩 크로노그래프 37mm.
- 9 18K 핑크 골드 케이스에 약 1캐럿에 달하는 32개의 브릴리언트 컷 다이아몬드를 세팅한 베젤, 라이트 블루 타피스리 다이얼과 같은 색의 러버 스트랩으로 완성한 로열 오크 오프쇼어 셀프와인딩 크로노그래프 37mm.

사이즈와 컬러의 미학을 완성하다, 37mm 로열 오크 오프쇼어 셀프와인딩 크로노그래프

드디어 오데마 피게가 로열 오크 오프쇼어 컬렉션에도 5년에 걸쳐 자체 개발한 최신 칼리버 6401을 도입했다. 두께가 더 얇아진 이 무브먼트는 편안한 착용감과 미적 감각을 모두 향상 시키도록 설계되었으며, 덕분에 로열 오크 오프쇼어를 37mm의 더 작은 사이즈로도 만날 수 있게 된 것이다. 케이스 사이즈와 함께 두께 역시 이전 모델에 비해 얇아졌는데, 이는 손목이 다소 얇은 남성이나 여성에게도 편안한 착용감을 선사해, 선택의 폭을 넓혔다는 점에서 의미가 깊다. 이와 함께 완벽한 비율을 위한 디자인적 변화와 발전이 뒤따랐다. 6시부터 12시 방향으로 곡선 형태를 이루는 베젤을 적용하고, 측면의 푸시피스는 새롭게 설계한 푸시피스 가드로 완성했으며, 푸시피스 가드의 연마 처리한 모서리 각은 케이스 미들로 매끄럽게 이어진다. 다이얼의 변화도 주목할 만한 점이다. 더 커진 사각형 타피스리 무늬를 선보이며, 새로운 육조형 핸드, 내부 베젤의 소형 아랑 아워 마커, 확대된 아라비아숫자가 미묘한 대비를 이룬다. 시각적 조화와 가독성 향상을 위해 날짜 표시를 4시 30분에서 6시 방향으로 옮겼으며, 컬러 조합마다 아랑 아워 마커의 색도 다르게 빛나게 하는 디테일을 적용했다. 핑크 및 터퀴즈 버전은 낮에는 흰색, 밤에는 녹색으로 빛나며, 핑크 골드 버전은 낮에는 푸른색, 밤에는 녹색으로 빛난다. 첫 번째 모델은 티타늄 소재의 케이스로 선보인다. 다이얼 면의 터퀴즈 타피스리 모티프, 내부 베젤, 동일한 색조의 카운터는 로동 색조의 숫자 및 흰색 아랑 물질을 채운 18K 화이트 골드 핸드와 조화를 이룬다. 같은 컬러의 러버 스트랩은 다이얼 컬러와 똑같이 구현해 색채 조합의 완성도를 높였다. 나머지 두 모델의 베젤에는 1캐럿에 달하는 32개의 브릴리언트 컷 다이아몬드를 세팅해 더욱 특별하고 색다른 느낌을 강조했다. 밝은 핑크 색상으로 다이얼과 스트랩을 완성한 모델은 티타늄 케이스와 스테인리스 스틸 베젤로 완성했으며, 시원한 파스텔 색조의 라이트 블루 컬러 다이얼과 스트랩으로 완성한 모델은 18K 핑크 골드 케이스를 조합했다. 컬렉션 고유의 정신을 계승하면서도 더욱 작고 가벼운 비율과 편안한 착용감으로 완성한 이번 신제품은 오데마 피게 특유의 독창적이고 현대적인 미학과 혁신적인 기술력을 보여준다. 생동감 넘치는 컬러와 개성 있는 스타일을 담은 새로운 로열 오크 오프쇼어 컬렉션은 여름롭고 청량한 여름의 에너지를 향한 찬사다. 문의 02-549-2999 에디터 성정민



하슬라, 예술로 다시 읽다

오래된 이름이 다시 불릴 때, 도시는 새롭게 들린다. 강릉의 옛 이름인 ‘하슬라’와 ‘소나무 숲이 울창한 고을’을 뜻하는 ‘솔울이’ 그렇다. 한때 역사와 지명에 머물던 이름들이 이제는 국제 예술제와 미술관 이름으로 다시 살아나고 있다. 세계적인 거장들의 작품을 소개하며 문을 연 솔울미술관은 지난해 시립 미술관으로 재개관해 새로운 역할을 이어가고 있고, 클래식 음악을 중심으로 강릉의 장소와 사람을 연결하는 하슬라국제예술제도 세 번째 가을을 맞이하게 된다. 이 새로운 문화 플랫폼들은 강릉에 낳은 무엇인가를 뒷색우기보다, 이 도시가 오래 품고 있던 이름과 장소, 자연과 기억을 다시 불리낸다. 강릉국제아트페스티벌(GIAF)의 존재감도 크다. 여기에 새 예술 공간과 창작자들의 움직임이 더해지면서 강릉의 매력이 하나씩 모습을 드러내고 있다.



10월의 축제, 도시의 풍경을 따라 흐르는 음악

강릉에서 예술은 이제 하나의 장르나 특정한 공간에 머무르기보다 도시의 여러 풍경과 만나는 방식으로 지평을 넓혀가고 있다. 올해 세 번째 가을을 맞는 하슬라국제예술제(hasla.or.kr)는 이런 변화를 잘 보여준다. ‘사랑과 우정’을 주제로 한 이번 축제(10월 16~25일)에는 가장 피아니스트 백건우를 비롯해 바비칸 파르멧, 이은결, 서의철 거단까지 서로 다른 장르의 예술가들이 함께한다. 바이올리니스트 후미아키 미우라, 첼리스트 송영훈, 강릉시립교향악단(지휘 정만)의 개막 무대를 시작으로, 2026 하슬라국제예술제 위촉작인 작곡가 김택수의 피아노협주곡 ‘내면의 저편’을 피아니스트이자 예술감독인 조재혁과 함께 세계 초연한다. ‘하슬라의 빛: 이은결 X 조재혁’은 드뷔시 ‘달빛’ 등 클래식 음악 선율에 일루션을 더해 초현실적인 예술적 경험을 선사하는 공연이다. 또 세계 초연작 ‘소리의 몸짓: 가무악일체’에서는 안무가 유희웅, 작곡가 강영상이 함께 국악과 클래식, 무용을 엮어내고, 서의철 거단이 함께해 가무악이 어우러진 색다른 무대를 완성한다. 축제의 대미인 폐막 무대는 백건우와 부천필하모닉 오케스트라가 맡는다. 한불 수교 140주년을 기념해 땡상 당대의 ‘프랑스 산골 선율에 의한 교향곡’, 드뷔시의 ‘바다’ 등을 연주할 예정이다. 백건우는 ‘자연의 소리야말로 가장 근본적이고 위대한 음악이라고 생각하

는데, 자연을 노래한 당대의 음악을 강릉에서 연주할 수 있게 되어 더없이 기쁘다’라고 소감을 밝혔다. 하슬라국제예술제는 국악과 무용, 일루션 등으로 장르의 경계를 넘어서는 한편 강릉아트센터 밖으로 무대를 확장해 도시 곳곳에서 음악을 만나는 기회를 만들어낸다. 특히 지역 연계 프로그램인 ‘우열 음악잔치’는 시민의 일상과 맞닿은 공간을 찾아가 음악을 건넨다. 강릉대도호부 관아에서는 판소리와 민속악으로 시민들과 어우러지고(서의철 거단), 초당성당에서는 익숙한 클래식 선율을 나누며(클래식관 앙상블), 강릉시립미술관 솔울(트리오 하슬라), 아르떼뮤지엄 강릉(바비칸 파르멧)에서는 미술과 미디어 아트 공간과 음악을 경험하게 한다. 단순한 공연 장소의 확장이 아니라, 음악을 매개로 도시의 장소와 사람을 새롭게 연결하는 방식이 눈길을 끈다.

강릉의 예술, GIAF를 토대로 바깥으로 확장하다

이러한 흐름은 시각예술에서도 이어진다. 하슬라국제예술제가 국내외 연주자들과 함께 강릉의 이름을 음악으로 알리고 있다면, 시각예술에서는 파마리서치문화재단이 강릉국제아트페스티벌(이하 GIAF)을 통해 동시대 미술의 가능성을 꾸준히 실험해왔다. 2022년 제1회 ‘강/릉/연/구’로 시작한 GIAF는 강릉의 역사와 삶, 장소에 대한 탐구를 이어왔다. 노암티컬과 서부시장,



- 1 지난해 ‘전물’을 주제로 열린 하슬라국제예술제의 무대 중 하나로 아르떼뮤지엄 강릉에서 미디어 아트 공간과 어우러진 아크 클래식(ARK CLASSICS) 공연. © Shin-joong Kim 2 올가을 첫 내한 무대 ‘사상동심(四聲同心)’에서 슈만 현악 4중주를 선보일 바비칸 파르멧. © Andrej Grlc 3 올해 폐막 무대(10. 25)를 장식할 피아니스트 백건우. © Brice Toul 4 2026 하슬라국제예술제 (예술감독 조재혁) 공식 포스터. Photo by 고정연 5 <경계에서 함께 보기> 전시 작품 중 하나인 고통의 작가의 사각의 경정(2023). 스틸 컷, 단채널 HD 비디오, 컬러, 사운드, 10분 56초. 제 3회 강릉국제아트페스티벌 (GIAF25) 커미션. © <제>파마리서치문화재단 ※1~4 이미지 제공_HASLA

책방과 지역 문화 공간 등 도시 곳곳을 전시장 삼아 국내외 작가들의 작업을 소개했고, 강릉의 장소성과 서사를 동시에 미술을 통해 새롭게 바라보는 시도를 이어왔다. 이제 GIAF에서 소개된 작품들은 강릉이라는 출발점을 넘어 새로운 장소와 맥락을 만나는 단계로 나아가고 있다. 지난 7월 방콕 쿤스트할레에서 개최된 <경계에서 함께 보기>는 그 흐름을 보여주는 사례다. GIAF를 통해 제작·발표된 커미션 작품들을 방콕 쿤스트할레의 공간적 맥락에 맞춰 재구성한 무빙 이미지 기반의 전시 프로그램이다. 강릉단오제와 태극 송크란이 공유하는 공동체적 ‘회복’의 감각을 바탕으로 강릉에서 출발한 작품들을 방콕이라는 새로운 도시의 시간과 장소에서 다시 바라보도록 했다. 전시 큐레이터를 맡은 파마리서치문화재단 박소희 상임이사는 이를 두고 ‘GIAF가 축적해온 강릉의 장소성과 서사를 방콕이라는 또 다른 도시의 시간 안에서 다시 읽어보는 과정’이라고 설명했다. 방콕 쿤스트할레는 차이나타운의 오래된 인쇄소 건물을 재생해 문을 연 현대미술 공간이다. 2001년 화재로 골조를 제외한 대부분이 소실된 건물의 흔적을 지우기보다 그 시간을 고스란히 간직한 채, 전시를 비롯해 강연, 퍼포먼스, 영화 상영 등 다양한 활동을 펼치는 문화 예술 플랫폼으로 다시 태어났다. 예술가들이 기존 공간에 작업을 맞추기보다 건물의 구조와 분위기를 자유롭게 해석하고 개입할 수 있도록 한 점도 특징이다. 이번 협업을 계기로 파마리서치문화재단은 향후 강릉에 조성될 복합 문화 공간 인온(INON, 가칭)을 중심으로 한국과 태국을 잇는 장기적인 문화 예술 교류의 기반을 마련해나갈 계획이다. 전 세계의 예술을 강릉으로 가져오는 데 그치지 않고, 강릉에서 탄생한 예술을 바깥으로 연결하는 움직임으로 이어지고 있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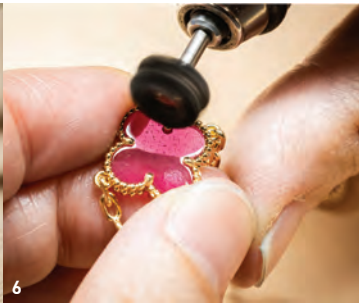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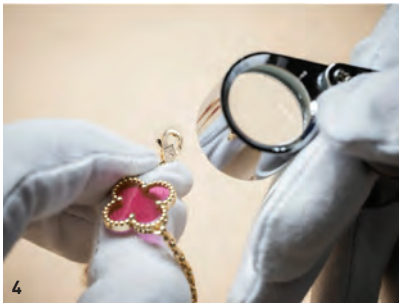
하슬라국제예술제가 음악을 통해 강릉의 장소와 사람을 연결하고 있다면, GIAF는 시각예술을 통해 강릉의 장소성과 이야기를 바깥으로 확장하고 있다. 서로 다른 장르지만, 두 예술제는 강릉에 존재하는 장소와 기억을 예술로 다시 읽고, 그것을 도시 안팎의 사람들과 연결한다는 점에서 맥을 같이한다. 글 고정연



알함브라는 하나의 모습에 머물지 않았다. 옐로 골드, 로즈 골드, 화이트 골드, 오닉스와 머티오브 펄은 물론이고 다이아몬드와 세브르 포슬린까지, 폭넓은 소재를 받아들였다. 폴리싱, 텍스처, 기묘 세 등 서로 다른 골드 가공 방식 역시 익숙한 네 잎 클로버 모티브에 매번 다른 표정을 불어넣었다. 올해 그 변화의 중심에 핑크 에나멜이 자리한다.

LUCK TURNS PINK

새로운 알함브라는 한눈에 시선을 붙드는 핑크빛을 폈다. 반클리프 아펠은 반투명 핑크 에나멜을 적용한 빈티지 알함브라와 매직 알함브라 라인에서 총 다섯 가지 작품을 새롭게 공개했다. 펜던트, 5모티브 브레이슬릿, 10모티브 네크리스로 이어지는 빈티지 알함브라 라인업과 20모티브 롱 네크리스, 그리고 매직 알함브라 이어링까지 폭넓게 구성됐다. 눈길을 끄는 점은 단순히 색상 자체가 아니라 빛이 에나멜 안쪽으로 스며들었다가 다시 표면 밖으로 퍼져나오게 한 방식이다. 그 덕분에 기존 알함브라에서는 볼 수 없던 깊이를 구현했다. 자세히 들여다보면 반투명한 에나멜층 사이에 미세한 기포가 자연스럽게 배어 있고, 둥글게 다듬은 표면 위로 빛이 부드럽게 미끄러지듯 움직인다. 균일하고 매끈한 단색과 달리 미묘한 표정을 자아내는 이유다. 핑크색을 구현한 방식 또한 흥미롭다. 반클리프 아펠은 17세기부터 전해 내려오는 ‘골드-루비’ 기법에서 아이디어를 얻었는데, 일반적인 안료로 색을 내는 대신 소재에 극히 미세한 골드 입자를 배합해 깊고 진한 색조를 만들어내는 방식이다. 입자의 크기와 형태, 그리고 농도에 따라 결과물이 달라지기 때문에 원하는 색을 안정적으로 재현하는 것 자체가 상당한 기술력을 요구한다. 메종은 이 완성도 높고 진귀한 에나멜을 구현하기 위해 자체 에나멜 공방에서 여러 해에 걸친 연구를 진행했다. 그 결과 탄생한 핑크 에나멜은 알함브라 모티브에 안착했으며, 타 메종과는 완전히 차별화되는 독특하고 고귀한 투명함을 선사하며 옐로 골드를 만났을 때 더욱 생명한 존재감을 발휘한다. 따뜻한 골드의 광채가 투명한 핑크를 받치고, 모티브 가장자리에 두른 작은 골드 비즈가 네 잎 클로버 모티브의 곡선을 또렷하게 강조한다. 매직 알함브라 이어링에서는 기묘세 옐로 골드와 핑크 에나멜을 함께 사용해 하나의 주얼리 안에서 서로 다른 질감과 광채가 교차한다.



- 1, 2 기묘세 옐로 골드와 핑크 에나멜을 조합한 알함브라 이어링. 서로 다른 크기의 두 모티브가 유려하게 이어지며 컬러와 광채의 대비를 강조한다. 3 옐로 골드와 핑크 에나멜을 조합한 빈티지 알함브라 펜던트 네크리스. 4, 5, 6 정교한 세팅과 폴리싱 등 장인의 손길을 거쳐 에나멜 특유의 투명한 색감과 깊이 있는 광채를 완성한다. 7 반투명 핑크 에나멜과 옐로 골드가 어우러진 빈티지 알함브라 브레이슬릿. 미세한 기포를 품은 에나멜 표면과 섬세한 골드 비즈가 조화를 이루어 모티브마다 고유한 깊이와 질감을 드러낸다. 8 섬세한 에나멜 장식이 돋보이는 벌론 컬럼(1987년), 반클리프 아펠 컬렉션.



CRAFTED TO SHINE

이번 만남이 더욱 의미 있는 이유는 에나멜이 반클리프 아펠에 낳은 소재가 아니기 때문이다. 메종은 1906년 창립 이래 오브제와 베니트 케이스, 샤를렌, 타임피스와 클립 등 다양한 작품에 에나멜을 활용해왔다. 1930년대에는 아르데코의 기하학적 디자인과 이국적인 풍경을 생동감 있게 표현했고, 1950~60년대에는 ‘라 부티크(La Boutique)’ 컬렉션의 애니멀 모티브와 플라워 주얼리에 풍부한 색채를 더했다. 에나멜에 대한 탐구는 현재까지도 이어지고 있다. 반클리프 아펠의 에나멜 공방은 미니어저 페인팅과 그리자유, 폴리크로아주르, 에나멜 데칼을 비롯해 15가지가 넘는 기법을 구사한다. 장인들이 기술을 익히고 다음 세대로 전할 수 있도록 3년 과정의 자체 에나멜링 학교도 운영한다. 오래된 기법을 보존하는 데 그치지 않고 끊임없이 연구하고 확장하는 메종의 메티에 다르(métiers d’art, 예술적 기교)에 대한 태도를 엿볼 수 있는 대목이다. 작은 알함브라 모티브 하나를 완성하는 데도 수많은 장인의 손길이 필요하다. 먼저 곡선형 에나멜 모티브를 골드 프레임에 정확하게 안착시키고, 두 줄의 골드 비즈로 특유의 윤곽을 완성한다. 세공과 세팅, 폴리싱을 거치는 동안 각각의 비즈와 곡선은 빛을 가장 아름답게 반사할 수 있도록 세심하게 다듬는다. 모티브를 고정하는 수식 년 동안 축적한 디자인과 기술, 소재에 대한 연구가 총출하게 겹쳐 있다. 그월기에 이번 핑크 에나멜 알함브라는 단순한 컬러 배리에이션 이상의 의미를 지닌다. 메종이 1906년부터 이어온 장식 예술의 전통과 1968년 탄생한 알함브라라는 두 가지 유산이 하나의 주얼리에서 만난 결과이기 때문이다. 반세기가 넘는 시간 동안 알함브라는 수많은 소재와 컬러를 받아들이며 조금씩 모습을 바꿔왔다. 이번에는 투명한 핑크 에나멜이 익숙한 네 잎 사이로 새로운 빛을 끌어들이었다. 행운을 상징하는 실루엣은 그대로지만, 그것을 바라보는 방식은 또다시 새로워졌다. 변하지 않는 아이콘 안에 새로운 빛을 품는 것. 반클리프 아펠이 알함브라의 다음 장을 써 내려가는 방식이다. 문의 1877-4128 객원 에디터 이만정



True Colors

모든 이의 시선을 한데 모을 팝 컬러 위치.
PHOTOGRAPHED BY PARKJAEYONG

(위부터 차례대로) 태그호이어 모나코 크로노그래프 테크니컬 칼리버 TH20-000이 드러나는 블랙 스텐레온 다이얼에 생동감 넘치는 터퀴이즈 컬리를 포인트로 사용해 존재감을 강조했다. 39mm 블랙 DLC 코팅 티타늄 케이스를 매치했으며, 레드 컬러 핸즈로 풍성한 매력을 자아낸다. 1천7백64만원. 문의 02-3479-6021

블랑팡 레이디버드 컬러즈 다이아몬드 블루 디자인과 기술적인 면에서 현대 여성을 위해 탄생한 컬렉션의 위치로, 지름 34.9mm 18K 레드 골드 케이스 전체와 다이얼 중앙에 다이아몬드를 스노 세팅하고, 다이얼의 나머지 부분을 화이트 오팔린으로 완성해 오묘한 매력을 선사한다. 오토매틱 칼리버 1163L로 구동한다. 가격 미정. 문의 02-3479-1833

위블로 빅뱅 조이풀 스틸 스카이 블루 청량한 스카이 블루 컬러 조합으로 완성한 위치로, 지름 33mm 스틸 소재 케이스, 36개의 블루 토파즈를 세팅한 베젤을 매치했다. 40시간의 파워 리저브와 100m 방수를 제공하며, HUB1120 셀프 와인딩 무브먼트로 작동한다. 2천만원대. 문의 02-540-1356

모자앤씨 파이오니어 스파이스드 아쿠아 그 어떤 표식은 물론 인덱스조차 없이 터퀴이즈 다이얼과 오렌지 포인트의 컬러 조합만으로 미니멀하면서도 강렬한 디자인적 감성을 전달한다. HMC 201 오토매틱 무브먼트로 작동해 정밀한 기술력을 선사하는 지름 42.8mm 스틸 케이스의 타임피스 2천9백60만원. 문의 02-6905-3363

오메가 피게 로얄 오크 오프소어 셀프와인딩 크로노그래프 실용적인 지름 37mm 티타늄 케이스에 베젤에 약 1개월에 달하는 32개의 브릴리언트 컷 다이아몬드를 세팅하고, 평한 무드를 주는 핑크 타파스라 다이얼과 러버 스트랩으로 완성해 사선을 사로잡는 위치. 셀프 와인딩 칼리버 6401로 구동한다. 6천7백5만원. 문의 02-543-2999

소피드 알파인 이글 클래식하고 세련된 럭셔리 스포츠 워치 디자인으로 지름 41mm 루센트 스틸™ 케이스와 브레이슬링에 독특한 무드를 선사하는 모스 그린 컬러의 선바스트 패턴 다이얼을 적용해 모한 분위기를 자아낸다. 안티마그네틱 밸런스 스프링을 도입해 자기장을 더욱 효과적으로 방어하는 소피드 01.01-C 무브먼트를 탑재했다. 1천5백55만원대. 문의 02-2118-6085

오메가 시마스터 아쿠아 테라 150MM 브랜드의 유서 깊은 해양 탐험의 전통을 기념하는 타임피스. 지름 30mm 스테인리스 스틸 케이스에 라벤다 컬러의 태양광 패턴 토티드 레커 다이얼을 매치하고, 11개의 보트 선체 모양 인덱스와 새롭게 각면 처리한 핸즈 디자인이 돋보인다. 1천50만원. 문의 02-3467-8632

에디터 성경민

최진경, 김민지

New Eastern Reverence

부티크는 브랜드의 가치와 미학을 고객의 경험으로 확장하는 공간이다. 키린은 이러한 의미를 담아 신세계백화점 강남점 1층에 새로운 부티크를 열고, 국내 시장에서의 입지를 더욱 공고히 한다. 브랜드의 세계관을 오감으로 경험할 수 있도록 구성된 이곳에서는 키린을 대표하는 울루를 비롯해 보보, 유이 등의 파인 주얼리와 울루 제이드 같은 신제품을 한자리에서 만나볼 수 있다. 국내 고객과 직접 소통하며 브랜드를 보다 가까이에서 경험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다.



동양의 문화적 상징성을 주얼리에 담은 키린이 신세계백화점 강남점 1층에 새로운 부티크를 오픈했다. 롯데백화점 본점 예비뉴얼, 갤러리아 명품관, 신세계백화점 본점에 이은 네 번째 부티크로, 키린의 철학과 동양의 미학을 집약한 상징적 공간으로 자리한다. 부티크 내부는 올헤 베이징 자원에서 선보인 프라이빗 전시 〈미라클 가든(Miracle Garden)〉을 옮겨놓은 듯, 레드 컬러와 조롱박 모티브의 울루 디자인을 바탕으로 설계했다. 주얼리에 시선이 머물 수 있도록 레드 월을 중심으로 은은한 베이지 컬러와 직선적 구조를 적용했으며, 곳곳에 배치한 사각형 쇼케이스와 함께 그동안 키린이 추구해온 자연과 인간, 주얼리가 어우러진 공간을 완벽하게 구현했다. 주얼리를 직접 살펴보고 착용해볼 수 있는 별도의 공간도 마련해 여유롭게 컬렉션을 둘러볼 수 있다.

이번 부티크에서는 키린의 세계관과 함께 주요 컬렉션을 한자리에 살펴볼 수 있는데, 대표 컬렉션인 울루(Wulu)를 비롯해 보보(Bo Bo), 유이(Yu Yi), 씨씨(Xi Xi) 등 다채로운 파인 주얼리 컬렉션이 자리하며, 최근 공개한 울루 제이드(Wulu Jade)와 울루 화이트 골드 컬렉션도 함께 확인할 수 있다. 행운과 번영을 상징하는 조롱박에서 영감을 얻은 울루 디자인에 귀중한 스톤을 세팅해 세월을 초월한 아름다움을 강조했다. 울루 제이드 컬렉션은 행운을 의미하는 제이드를 전면에 드러내며 풍부한 색감과 동시대적 감각을 보여준다. 18K 화이트 골드와 다이아몬드로 제이드를 조합한 스몰 울루 네크리스부터 스몰 울루 태그 펜던트, 로즈 골드, 제이드, 다이아몬드를 세팅한 울루울루 링, 썬피 울루에 이어 스트러



1 행운을 상징하는 조롱박 모티브의 울루에 다이아몬드를 세팅하고, 중앙을 아코야 진주로 장식해 우아한 매력을 완성한 라지 울루 펜던트 1천73만원. 2 그린 제이드 태그 모티브를 중심으로 다이아몬드를 수놓은 제이드 스몰 울루 태그 펜던트 8백21만원. 3 썬피 울루 다이아몬드를 세팅한 화이트 골드 소재의 울루 미니 솔리테어 링 1백53만원. 4 소중한 순간을 위한 '마이 울루' 캠페인에서 배우 임윤아는 키린의 시그니처, 마이 울루 네크리스와 이어링을 착용했다. 5 신세계백화점 강남점 1층에 새롭게 문을 연 키린 부티크 외관.



“

키린은 동양 고유의 가치와 기품을 담아 시대와 세대를 초월한 주얼리를 선보이며, 신세계백화점 강남점 1층 부티크 오픈을 통해 브랜드의 존재감을 더욱 확고히 했다.”

까지, 다양한 아이템으로 구성했다. 다음은 18K 화이트 골드를 중심으로 다이아몬드와 아코야 진주를 조화롭게 배치한 울루 화이트 골드 컬렉션, 파베 다이아몬드 라지 울루 이어링을 필두로 울루 미니 브레이슬릿, 라지 울루 태그 펜던트, 미디엄 울루 링, 울루 후프 링 등 클래식 울루의 아이코닉한 실루엣을 다채롭게 확장했다. 다이아몬드와 진주 세팅의 조화는 울루 특유의 우아한 분위기를 한층 부각한다. 이와 함께 글로벌 앰배서더 임윤아 배우와 함께 공개한 '마이 울루(My Wulu)' 글로벌 캠페인과 컬렉션도 빼놓을 수 없다. “만약 당신의 울루에 단 하나만 담을 수 있다면, 무엇을 담고 싶나요?”라는 질문에서 출발한 캠페인은 브랜드의 시그니처 컬렉션 울루를 중심으로 다큐멘터리 형식의 영상으로 전개된다. 배우 임윤아의 일상을 따라가며 간직하고 싶은 소중한 기억과 감정을 표현하고, 자신에게 가장 중요한 가치를 울루 주얼리에 투영한다. 주얼리를 통해 소중한 기억을 간직하는 마이 울루의 메시지처럼, 키린은 상징과 소재에 의미를 부여해 고유한 디자인을 완성한다. 새롭게 문을 연 신세계백화점 강남점 부티크에서 마이 울루를 비롯한 다채로운 컬렉션을 만나고 키린이 이어온 동양적 사유를 보다 깊이 있게 들여다보길 바란다. 문의 02-3479-1962 에디터 김하얀



2026 F/W Trend Report

익숙한 것은 새롭게,
클래식은 더욱 대담하게.
하우스의 유산을 다시
꺼내 든 룩부터 풍성한 퍼와
체크 패턴, 강렬한 레드,
볼륨을 키운 백과 개성
넘치는 슈즈까지.
F/W 컬렉션을 통해 꼽아본
패션 하이라이트 8.



Heritage Revival

새로운 것을 좇기보다 각 하우스가 가장 잘해온 것에 주목했다. 과거를 그대로 되풀이하기보다 브랜드의 유산을 지금의 감각으로 새롭게 풀어낸 것. 랄프 로렌은 프레피와 스포츠웨어, 빈티지 아메리카나(Vintage Americana)를 한데 엮어 수십 년간 구축해온 아메리칸 클래식스를 되살렸고, 구찌는 톰 포드 시대의 1997 S/S 컬렉션을 오마주한 G-스트링을 다시 꺼내 들었다. 27년 만에 펜디로 돌아온 마리아 그라치아 치우리 역시 아이코닉한 바게트 백 아카이브를 다시 펼쳐 보이며 하우스의 과거와 현재를 연결했다. 가장 익숙한 유산에서 새로운 가능성을 발견한 하우스들의 영리한 귀환이다.



Fuzzy Feeling

보기만 해도 포근한 파가 이번 시즌 런웨이를 풍성하게 채웠다. 코트는 물론 모자와 슈즈까지 영역을 넓히며 다양한 방식으로 매력을 드러낸 것이 특징. 보테가 베네타는 퍼를 슈즈에 활용해 룩에 재치 있는 포인트를 주었고, 버버리는 퍼 코트의 허리를 벨트로 조여 실루엣을 도톰하게 만들었다. 매종 마르지엘라는 퍼를 몸의 선을 따라 흐르듯 밀착시켜 소재 특유의 질감을 강조했으며, 에르메스는 몸을 감싸는 풍성한 퍼 코트로 극적인 볼륨을 완성했다. 울거울 퍼를 즐기는 방법은 어느 때보다 다채로울 예정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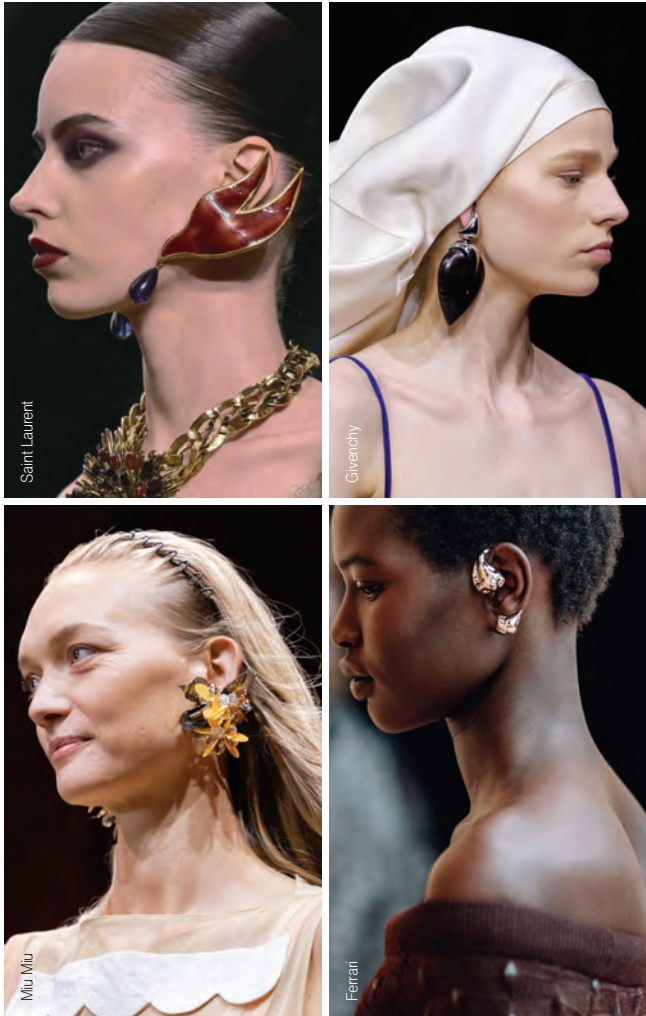
Lace It Up!

끈을 단단히 조여 맬 시간이다. 이번 시즌 익숙한 레이스업 디테일이 부츠부터 스니커즈, 힐까지 다양한 슈즈에 스며들었다. 오니츠카 타이거는 플라워 패턴을 입힌 롱부츠에 출출한 레이스업을 추가해 화려했던 존재감을 드러냈고, 프라다는 날렵한 로 프로파일 스니커즈에 대비되는 컬러의 끈을 매치해 스포티한 매력을 강조했다. 마르니는 슬링백 힐에 레이스업 디테일을 접목해 여성스러운 실루엣에 색다른 재미를 주었다. 어떤 슈즈를 고르든, 레이스업으로 확실한 포인트를 더해볼 것.



Ear Candy

작고 양전한 귀고리는 잠시 잊어도 좋다. 이번 시즌 이어링은 얼굴 주변을 장식하는 액세서리를 넘어 룩의 인상을 결정하는 스테이트먼트 피스로 존재감을 키웠다. 발렌티노와 생 로랑은 대담한 크기와 조형적 형태로 얼굴선을 강조했고, 지방시와 미우미우는 반짝이는 소재와 기하학적 디자인으로 시선을 사로잡았다. 페라리 역시 귀를 감싸듯 이어지는 볼드한 메탈 장식으로 완성했다. 컬러도, 형태도 자유롭게만 한 가지는 분명하다. 한눈에 들어올 만큼 대담할 것.



Check, Please!

클래식한 체크에 새로운 변수가 더해졌다. 이번 시즌 체크는 컬러와 크기, 서로 다른 패턴을 자유롭게 섞으며 한층 대담해졌다. 루이 비통은 선명한 컬러의 체크를 여러 방향으로 교차시키고 대담하게 레이어링해 그래픽적인 룩을 완성했다. 끌로에는 퍼플과 그린 어우러진 체크 러플 스커트에 플라워 패턴을 매치해 로맨틱하면서도 자유분방한 분위기를 연출했다. 아크네 스튜디오 역시 익숙한 체크를 예상 밖의 컬러와 스타일링으로 변주하며 흐름에 힘을 보탰다. 이번 시즌 체크의 매력은 반듯하게 맞추기보다 과감하게 섞을 때 더욱 빛난다.



Big & Soft

프로 보부상들에게 희소식. 멋도, 수납도 포기할 수 없는 이들을 위해 빅 백이 더욱 크고 여유로운 모습으로 돌아왔다. 토조는 새로운 T 시그니처 백에 유연한 실루엣과 넉넉한 수납력을 갖추고, 세련된 스트랩과 아이코닉한 T 장식으로 포인트를 주었다. 에르메스는 클래식한 플룸 푸르투 백에 1980년대 불박스를 연상시키는 형태를 접목해 실용적인 빅 백에 위트를 가미했고, 돌체앤가바나는 가벼운 아우터까지 너그럽게 답을 법한 큼직한 쇼퍼 백으로 존재감을 드러냈다.



Seeing Red

이번 시즌 런웨이를 가장 뜨겁게 물들인 컬러는 단연 레드다. 가볍게 포인트를 주는 데 그치지 않고 아우터부터 드레스, 셋업까지 룩의 중심을 과감하게 차지했다. 아미는 클래식한 셔츠와 타이, 와이드 팬츠 위에 선명한 레드 아우터를 걸쳐 압상적인 스타일에 강렬한 포인트를 더했고, 블루마린은 조형적인 미니드레스부터 스타킹까지 레드로 통일해 대담한 분위기를 자아냈다. 톰 포드는 재킷과 스커트를 같은 컬러로 맞춘 모노크롬 룩으로 한층 정제된 레드를 제안했다. 선명하거나 깊고 농밀하거나, 이번 가을과 겨울, 레드는 한 가지 분명한 메시지를 전한다. 포인트에 머물지 말고 과감하게 즐길 것.



Into the Wild

자연이 옷과 액세서리 위에서 한층 생생하게 피어났다. 사냥은 청록빛 백에 꽃과 곤충이 연상되는 장식으로 작은 정원을 옮겨놓은 듯한 풍경을 완성했고, 디올은 수련을 닮은 입체적 장식과 유기적 실루엣으로 자연의 형태를 드라마틱하게 풀어냈다. 모스키노는 푸른 풍경을 픽셀처럼 표현한 프린트로 자연을 그래픽적으로 재해석했으며, 에트로의 동식물 모티브와 풍성한 자수, 프린지와 태슬을 겹겹이 쌓아 야생의 풍경을 그대로 재현한 듯한 룩을 선보였다. 꽃부터 풍경까지, 자연을 입는 방법도 어느 때보다 다채롭다.

후디드 코트 가격 미정 로에베.



About Autumn

새로운 유혹에 빠지다.
계절을 완성하는 뉴 룩, 뉴 스타일.
PHOTOGRAPHED BY LEE SANG HUN



실크 울 소재의 재킷, 스커트, 카프 스킨 소재의 물 모두 가격 미정 샤넬.



오프숄더 시어링 톱, 레더 톱,
데님 팬츠 모두 가격 미정 구찌.

세틴 셔츠 3백50만원, 비스코스 저지 셔츠 2백5만원, 코튼 저지 하이네 톱 1백20만원, 세틴 에단 팬츠 2백20만원, 스트랩 샌들 가격 미정 모두 셀린느.



실크, 램 스킨 소재의 재킷, 마이크로
자카드 니트 톱, 카프 스킨 소재의
스커트 모두 가격 미정 에르메스.



레더 포켓 드레스, 힐 들 모두 가격 미정 에라가모.



더블브레스트 울 재킷 8백만원,
실크 미나드레스 3백20만원,
더블 울 팬츠 4백40만원,
시아링 후드 가격 미정 모두 **미우미우**,
퀵넷 0.10CT 테니스 브레이슬릿,
5백50만원, 퀵넷 0.15CT 테니스
브레이슬릿 5백76만원, 퀵넷 0.20CT
테니스 브레이슬릿 7백24만원,
퀵넷 0.30CT 테니스 브레이슬릿
9백84만원, 페로자아 02 링
2백66만원, 페로자아 01 링
2백54만원 모두 **페로즈**.

헤어 김우준
메이크업 조혜민
모델 **Arina**(Exclusive Seoul)
스타일리스트 **채한석**

샤넬 080-805-9628
미우미우 02-3218-5331
페로즈 02-542-1254
에르메스 02-542-6622
셀린느 1577-8841
구찌 02-3452-1521
페라가모 02-3430-7854
에트로 02-3446-1362
로에베 02-3479-1785

Get

The

List



HUBLOT
브랜드만의 컬러 세라믹 노하우로 독특하고 개성 있는 피치 컬러를 구현한 지름 33mm 세라믹 케이스에 같은 컬러의 러버 스트랩을 매치해 완성했다. HUB1120 셀프 와인딩 무브먼트로 구동하는 빅뱅 피치 세라믹 33mm, 2천2백50만원 **워블로**, 문의 02-540-1356



BOUCHERON
18K 옐로 골드에 트윈스트 체인과 1백60개의 라운드 다이아몬드 4.41캐럿을 파베 세팅한 드롭, 그리고 이를 둘러싼 비즈 세팅까지, 컬렉션의 상징적 요소를 반영한 썬병 보헤네크리스 XL 모티브 5천5백60만원 **부채론**, 문의 080-822-0250



HERMÈS
아이코닉한 사다리꼴 실루엣에 2개의 스트랩이 교차해 회전식 클래스포로 잠기는 디자인이 클래식한 매력을 선사하는 카프 스킨 소재의 오프 아 크루아 쿠 드 슬레이 백, 50×45×30cm, 가격 미정 **에르메스**, 문의 02-542-6622



CHANEL WATCHES & FINE JEWELRY
(왼쪽부터) 블랙 세라믹 소재로 이루어진 아이코닉한 디자인의 워치로, 케이스 지름 28mm로 새롭게 선보였다. 고정밀 쿼츠 무브먼트로 구동하는 J12 워치, 18K 옐로 골드 소재에 핏팅 모티브를 더한 코코 크러쉬 이어링, 모두 가격 미정 **샤넬 워치 & 화인 주얼리**, 문의 080-805-9628

POMELLATO
(위부터 차례대로) 특유의 불꽃감 있는 곡면에 새긴 기하학적 모티브에 다이아몬드를 세팅해 완성한 이코나가 다이아 카테일 링, 로즈 골드 밴드에 다이아몬드를 풀 파베 세팅한 이코나가 다이아 풀 파베 슬림 링, 루비, 에메랄드, 블루 사파이어를 각기 다른 모양으로 세팅해 트윙클링유 효과를 연출한 이코나가 엑스트라 슬림 링, 루비, 차보라이트, 에미시스트를 각기 다른 모양으로 세팅한 이코나가 슬림 링 모두 가격 미정 **포멜라토**, 문의 0030-8321-0441



CELINE
브라운 스웨이드에 카프 스킨 라인 디테일이 특징인 빈티지한 무드의 리틀 하프문 소프트 트라윙프 솔더백, 25×13×5cm, 3백50만원 **셀린느**, 문의 1577-8841



CHANEL BEAUTY
하우스의 헤리티지를 담은 프리미엄 매트 립스틱으로 오랜 시간 보존하고 부드러우며 선명한 립 메이크업 연출을 돕는다. 다이아몬드처럼 섬세하게 커팅한 글라스 케이스가 돋보이는 트렁크 영 루주 마드 루주 저지 3.3g, 21만7천원 **샤넬 뷰티**, 문의 080-805-9638



LORO PIANA
부드러운 곡선미를 자랑하는 긴 실루엣이 돋보이는 스타일로 파인 그레이진 가족에 아이코닉 기예라 참과 시그니처 패들룩 디테일로 마감한 2026 F/W 컬렉션 엑스트라 소프트 백 L29, 29×12×12.5cm, 가격 미정 **로로피아나**, 문의 02-6200-7799 **에디터 이정민**



(위부터 시계 방향으로) 패브릭과 카프 스킨으로
클래식한 실루엣을 완성한 오프 아 크루아 백,
48×42×27cm, 가격 미정 **에르메스** 문의
02-542-6622, 타원형 로고를 중심으로 슬릿
디테일과 스트라이프 패턴이 조화를 이루는
다 백 폴리오, 43×41×12cm, 4백17만원
토즈 문의 02-3438-6008, 가로로 긴
실루엣과 지퍼 디테일, 톱 핸들 등이 특징이다.
은은한 광택이 나는 유연한 그레인 카프
스킨의 뉴 라가지 라지 백, 69×32×20cm,
6백70만원 **셀린노**, 문의 1577-8841, 블루
스트라이프 패턴과 블랙 레더의 조합으로
포멀과 캐주얼을 모두 아우르는 사실리 백,
65×40×20cm, 6백25만원 **둘체앤가바나**.
문의 02-3442-6888, 군더더기 없는 모던한
디자인과 넉넉한 수납력으로 높은 활용도를
자랑한다. 아이코닉한 트라이앵글 로고로
마무리해 브랜드의 미학을 전하는 레더 토트백,
48×34×16cm, 가격 미정 **프라다**.
문의 02-3442-1831 **에디터 김하얀**



한 손에 들기조차 벅겁다. 과감한 사이즈 자체로 스타일에
강렬한 악센트를 더하는 XL 백.

PHOTOGRAPHED BY **KIM HEUNG SOO**

아이스크림 감자칩



Scented September

한층 깊어진 계절, 저마다의 향과 서사로 완성된 가을과 마주하다.

PHOTOGRAPHED BY **CHOI MIN YOUNG**

(오른쪽 위부터 시계 방향으로) **반클리프 아펠 퍼스트** EDT 1976년 마스터 조향사 장-클로드 엘레나가 완성한 메종 최초의 향수 '퍼스트'를 현대적으로 재해석했다. 일대하이드 향에 제스민과 로즈, 투베로즈, 카네이션, 아이리스가
풍성한 플로럴 부케를 이루고 오크무스와 앰버, 샌들우드가 깊이 있는 진향을 더한다. 100ml 42만7천원, 문의 080-550-0010 **바이레도 퓨처 메모리즈 오 드 퍼퓸** '태일의 기억'이 될 '오늘의 순간'이라는 메시지에서 출발해
바닐라를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향수. 설탕, 각인, 기억으로 이어지는 세 가지 테마를 통해 시간이 지나 기억으로 남는 순간을 향으로 표현했다. 감해남과 블랙커런트, 앰데하이드에 오리스 베타와 라벤다님이 깊이를 더하고, 오렌지
플러싱에 화이트 바닐라와 바닐라 리큐어, 머스크가 따뜻한 여운을 남긴다. 100ml 43만5천원대, 문의 1533-7305 **메종 마르자엘라 프래그런스 센소리움 CH4** 빈더 **디파인드** 메종의 오트 쿠티르 정신을 향으로 확장한
센소리움 컬렉션의 네 번째 향. 은은한 인센스와 스모크, 리코리스 노트에 발상전나무 향이 어우러져 부드러우면서도 강렬한 대비를 이룬다. 75ml 56만원, 문의 080-363-5454 **조 말론 런던 씨 솔트 앤 베르가못 코롱** 영국 켈트해에서
영감받은 향으로, 신선한 베르가못에 깨끗한 미네랄이 연상되는 시 솔트와 드리프트우드가 어우러져 해안의 청량한 에너지를 전한다. 100ml 24만5천원, 문의 1644-3753 **딜티코 오프백** EDT 파리의 전설적인 오르페옹
재즈바에서 파티가 절정으로 향하는 이른 저녁의 춤나를 향으로 구현했다. 그린 만다린과 유자의 시트러스 향에 주니퍼 베리, 핑크베리, 진저의 스파이시향을 더하고, 로즈와 메그놀리아의 섬세한 플로럴 노트를 거쳐
시더우드와 머스크의 우디한 진향으로 이어진다. 100ml 27만5천원, 문의 02-3479-6049 **줄리엣 헤조 어 건 리스트 포션 오 드 퍼퓸** 눈부신 햇살에서 영감을 받은 풍성한 플로럴 향수. 코코넛과 프리지아,
베르가못에 가드니아와 일랑일랑, 오렌지 노트가 어우러지고, 화이트 머스크와 앰버록산, 바닐라가 따뜻한 진향을 남긴다. 100ml 가격 미정, 문의 080-363-5454 **에디터 신정임**

Editor's Pick

매일 손이 가는 스킨케어부터 립 & 아이섀도, 향기로운
아이템까지, 지금 주목해야 할 이달의 뷰티 셀렉션.

PHOTOGRAPHED BY **KIM YOUTAE**

GLOWING SKIN
시세
스킨 마
피부에 드

시세이도 리바이탈에센스
스킨 매트 파운데이션 #120
부에 닿는 순간 세럼 캡슐이
며 수분감을 더하고, 가볍게
노화 화사하고 은은한 광채를
하는 파운데이션. 미백, 주름
자외선 차단 3중 기능성을
갖췄다. 30g 8만5천원대.
문의 080-564-7700
_by 인터넷 에디터 김지현

누그레이 듀이티 스테인
틴트 #7 카라멜 로즈
글로시한 제형과 선명한
발색을 모두 잡은 만능 톤
무겁거나 답답한 오일 믹스
아니 투명한 광택감으로
오래도록 반짝이는
이슬 광을 연출한다.
4g 1만6천원.
문의 070-8810-1984
_by 에디터 **성정민**

센소다인 센서티비티 앤 겜케어
플루오르화성 성분이 민감한 치아
표면에 보호층을 형성해 시린
증상을 예방하고 완화하며,
이크로포 포물러가 달기 어려운
곳의 플라크까지 효과적으로
제거해 잇몸 건강 관리에 도움을
준다. 120g 1만2천원.
문의 080-530-4100
by 에디션 신정임

* 김하얀(40대 지성), 성정민(30대 민감성), 신정임(30대 복합성), 김지현(20대 건성)



1 로로피아나 엑스트라 소프트 백 L29

로로피아나가 아이코닉한 엑스트라 라인의 새로운 사이징인 '엑스트라 소프트 백 L29'를 공개했다. 기존 엑스트라 라인의 디자인 정체성을 유지하면서도 한층 콤팩트한 비율로 완성했으며, 절제된 디자인과 유려한 실루엣, 고급스러운 소재가 조화를 이룬다.

문의 02-6020-7799

2 그래프 하이 주얼리 캠페인

그래프가 브랜드의 철학을 담은 새로운 하이 주얼리 캠페인을 공개했다. 메종을 상징하는 화이트와 옐로 다이아몬드가 만들어내는 강렬한 광채의 대비가 시선을 사로잡는다. 40캐럿 에메랄드 컷 옐로 다이아몬드를 세팅한 하이 주얼리 컵는 메종의 '스토 중심 디자인 철학'을 대표하는 피스로, 압도적인 스케일과 교묘한 기하학적 아름다움을 자랑한다. 문의 02-2256-6818

3 에르메스 2026 F/W 오브제 프레젠테이션

에르메스가 에르메스 대중 도산에서 2026년 F/W 오브제 프레젠테이션을 진행했다. 이번 전시는 '미지의 세계'라는 테마 아래 '모든 창작은 뜻밖의 발견이자 새로운 아름다움으로 향하는 여정'이라는 의미를 담았다. 도시의 구조물과 자연 풍경에서 영감을 받은 다양한 오브제 컬렉션을 함께 선보였다. 문의 02-542-6622

4 프라다 에메 미디움 레더 솔더백

1990년대의 세련된 미니멀리즘에서 영감을 받은 프라다의 '에메' 백. 유연한 실루엣이 특징이며, 부드럽고 고급스러운 가죽 보디에 심플한 엠보싱 레터링 로고를 전면에 장식해 절제된 세련미를 더한다. 문의 02-3442-1831

5 토즈 아우투노 이탈리아노 팝업

토즈가 신세계백화점 강남점에서 가을 분위기를 담은 '아우투노 이탈리아노' 팝업을 진행했다. 이번 팝업에서는 토즈의 우아함과 섬세한 디테일, 브랜드의 헤리티지를 담은 2026 F/W 컬렉션을 선보였다. 이

와 함께 계절감이 느껴지는 컬러와 정교한 디테일
이 돋보이는 애니멀 모티브의 백과 슈즈를 만나볼
수 있었다. 문의 02-3448-0442

6 호간 맥시 아이 액티브 스니커즈

호간이 창립 40주년을 맞아 밀라노의 감성과 브랜드 컬러를 담은 2026 F/W 컬렉션을 공개했다. 이번 컬렉션에서는 브랜드의 대표적 여성 스니커즈 라인 '맥시 아이 액티브 스니커즈'가 눈길을 끈다. 미려한 디자인에 볼륨감 있는 굽이 특징이며, 아이코닉한 'H' 로고를 힐 부분에 배치해 호간만의 디자인 아이덴티티를 반영했다. 문의 02-3479-1593

7 럽방칼렉션 애플라 백
 럽방칼렉션의 '애플라 백'은 크로커다일 패턴이 돋보이는 토트백으로, 악이가죽을 사용해 고급스러운 분위기를 완성했다. 직사각 실루엣과 둥글게 이어지는 더블 핸들이 클래식한 무드를 불어넣으며, 상단의 지퍼 클로징으로 소지품을 안정적으로 수납할 수 있다. **사이즈 1800-5700**

8 로에베 2026 F/W 컬렉션

잭 맥클로와 라자로 에르난데스의 두 번째 로에베 F/W 컬렉션은 브랜드의 공예 정신을 바탕으로 옷의 구조와 색감을 강조한 디자인이 돋보인다. 노란색과 초록색 등 선명한 원색과 불륨감 있는 실루엣이 주를 이루며, 거친 인조 모피와 광택이 도는 옷감 등 서로 다른 질감을 활용해 입체감을 살린 점이 특징이다. 문의 070-4732-0256

9 미우미우 2026 F/W 캠페인

미우미우 2026 F/W 캠페인은 가진 도시 풍경과 로맨틱한 실루엣의 대비를 통해 이번 시즌 브랜드가 제안하는 다층적인 여성성을 드러냈다. 주요 아이템으로는 빈티지 감성이 담긴 오버사이즈 시어링 재킷, 오매퍼 코트, 무릎 높이의 스니커즈 부츠 등을 선보였다. 문의 02-541-7443



6

10 프레드 프리터 우먼 인제이먼트 링
프레드의 브라이덜 컬렉션 '파르 아모르(Par Amour)'는

나는 인생의 크고 작은 모든 순간을 예찬한다. 그중 '프리티 우먼 인게이지먼트 링'은 하트 모양의 센터 다이아몬드를 브릴리언트 컷 다이아몬드 헤일로 세팅으로 감싸 모던하면서도 섬세한 아름다움을 완성했다. 문의 1660-193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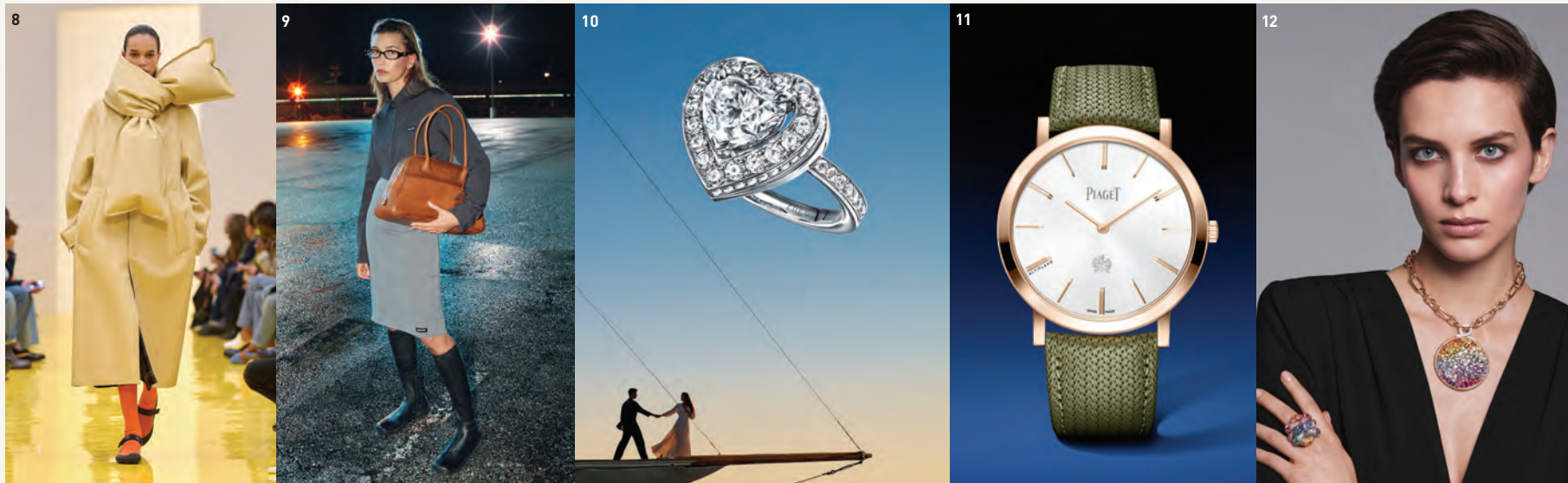
11 피아제 알티플라노 오리지 38mm

피아제가 메종을 대표하는 드레스 워치 '알티플라노'의 헤리티지를 이어가는 새로운 '알티플라노 오리지 38mm'를 출시했다. 미니멀한 다이얼 디자인이 돋보이는 이 타임피스에는 화이트 골드와 로즈 골드 케이스로 선보인다. 두께 2.1mm의 울트라-스킨 수동 칼리버 430P로 구동하며, 약 43시간의 파워 리저브를 제공한다. 문의 1877-4275

12 포멜라토 스틸레 리베로 컬렉션

포멜라토가 새로운 하이 주얼리 컬렉션 '포멜라토 스틸레 리베로(Pomellato Silero Liberty)'를 공개했다. 밀라노 특유의 여유롭고 세련된 우아함을 바탕으로 탄생한 이 번 컬렉션은 자기 표현과 창조적 자유를 담아내며, 브랜드가 이어온 여성상에 대한 철학을 불어넣었다. 컬렉션은 '비저리터 컬렉터', '마그네틱 골드', '힐프티 세도우', 3개의 챗elier로 구성되어, 각 챗elier를 통해 '자유'라는 가치를 다채롭게 표현했다. 문의 0030-8321-0441

Showroom





SUBLIMAGE
L'EXTRAIT DE NUIT AND L'EXTRAIT BAUME REGARD

밤사이 피어나는 숭고한 광채

CHANEL